

중 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

@Badinodo

RSF 국경없는기자회

목 차

서문	3
정보에 대한 장애물의 증가	4
1 - 베이징 당국이 저널리즘에 전쟁을 선포한 방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 강화 	8
레드 라인의 확산	8
이데올로기 통제 지배	11
감시에 반대하는 기자들의 혁신	14
● 표적이 되는 언론인	18
사라져가는 독립 언론	19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언론 봉쇄	22
원치 않는 목격자, 외신 기자	24
2 - 홍콩 : 언론 자유의 몰락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언론 탄압 	28
비용을 개의치 않는 "국가 보안"	28
언론인, 새로운 이단자	32
빈과일보 폐간	35
● 20 년간의 언론 자유 몰락	37
예고된 퇴보의 연대기	37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기자들	40
캐리 램 장관의 모호한 말	42
3 -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범죄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을 통제하려는 집착 	48
코로나 19: 순식간에 진압된 자유의 폭발	48
중국의 인터넷 감시	51
수많은 저항 방법	55
● 저널리즘을 금하는 사회의 비전	58
베이징 언론 모델의 성공적 수출	58
"중국 이야기" 강요	62
선전과의 전쟁을 조직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66
4 - 국경없는기자회의 호소 및 권고 사항	68
중국 당국에 대한 호소	70
각국 정부 및 기관에 대한 호소	70
언론인을 위한 제안	71
언론사, 출판사,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제안	72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인 안전에 대한 리소스 플랫폼 출시	74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 : 새로운 세계 미디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	75
용어집	76
앞표지 일러스트 : 바두차오	80

서 문



글 :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

그릇된 방향을 향한 광란의 질주

새 천 년이 시작될 즈음, 중국 언론은 전례 없는 경기 번영과 후진타오 주석 및 공산당이 열어놓은 작은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취재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부패 및 공중보건 스캔들에 관한 면밀한 취재로, 중국 언론인들은 동포들에게 중국의 성장을 뜯어볼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로 하여금 체제의 결함을 파악하고 부정부패 일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사회 및 정치 체제의 핵심은 완전히 불투명했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취재 범위가 가장 필수적인 것을 포함해 조금씩 모든 주제로 확장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자유가 주변부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때문에 구심성의 소용돌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을 인정사정없이 끝내버렸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범죄가 됐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더 큰 범죄가 되는, 흡사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언론 문화가 부활했다. 세계 최대의 언론인 감옥인 중국은 2021년 RSF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했다. 저널리즘이 국가의 선전을 의미하는 북한보다 겨우 두 단계 앞서는 수준이다.

이제 중국에서 언론인 자격을 갱신하려면 주석의 "사상"에 대한 지식 평가를 치러야 하며, 소셜네트워크 기록을 조사받아야 한다. 통제의 광란 속에서 정권은 머지않아 민간 언론을 금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탄압은 한때 언론 자유의 옹호자였던 홍콩을 더 이상 과거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았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점점 더 많은 언론인이 체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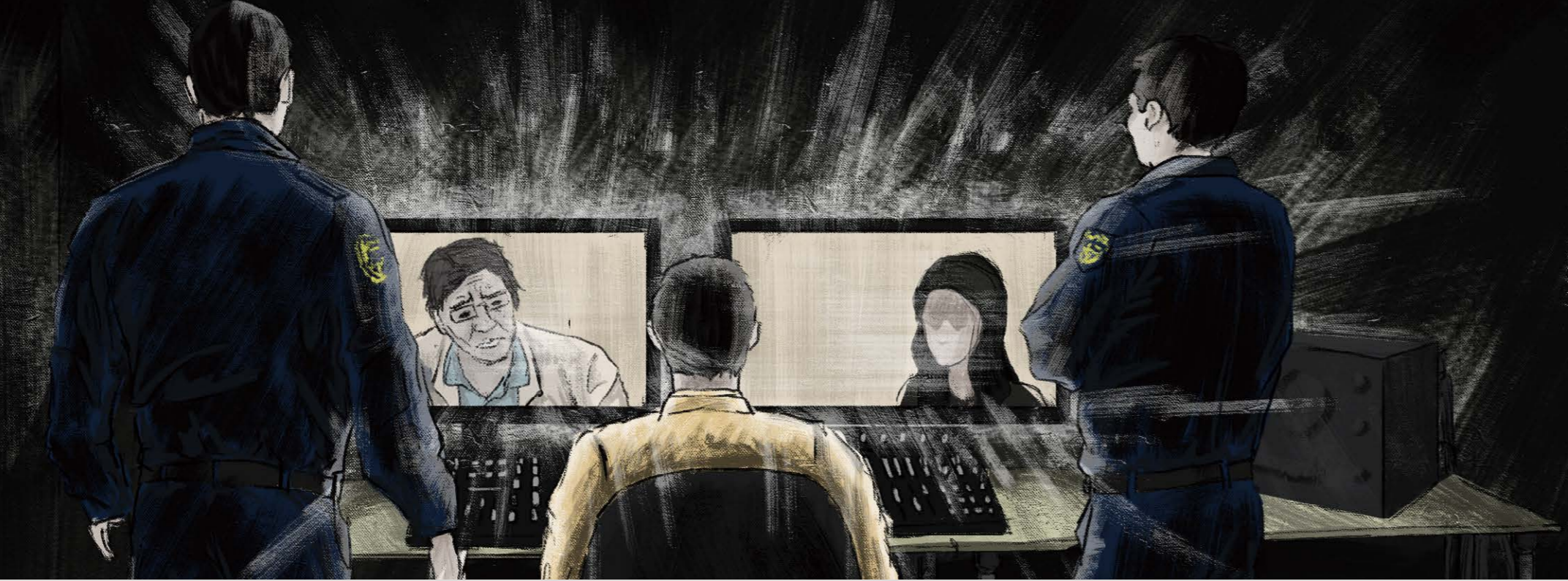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 저널리즘의 "거대한 후퇴"는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정교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은 중국 내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세상과 괴리시킨다. 검열관들은 사적 메시지를 면밀히 조사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추정되는 내용을 찾고 있다. 머지않아 안면 인식과 인공 지능, 사회적 신용에 기반한 감시 기술은 취재원 보호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2019년에 발표한 *새로운 세계미디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저널리즘을 국가 선전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이 139개국 (세계 인구의 3분의 2)을 대상으로 시작한 국제 경제 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는 이러한 야망을 위한 모든 기회가 담겨있다.

중국이 이 광란의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언론 자유 확립이라는 중국 시민들의 희망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베이징 당국은 이러한 언론 탄압 모델을 국내외로 이식하는 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 통제는 결국 시스템 자체에 해를 가하고, 자체적인 개혁을 방해함으로써 선전의 대중 동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중국과 외신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이는 가능한 일이다.



© Safeguard Defenders

정보에 대한 장애물의 증가

• 만리방화벽

"만리방화벽"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방화벽의 역할을 고대 중국 만리장성에 비유한 중국 인터넷 검열 기구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의 차단과 거래 기록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 시스템은 점점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인터넷 경찰

중국 온라인 토론 그룹은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고, 해당 관리자는 내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진다. 소셜네트워크 위젯은 경찰의 트로이 목마가 되었다. 암호화되지 않은 비공개 대화는 당국에서 공식적인 사유 없이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재판에서 흔히 증거로 사용된다.

• 정부의 트롤 부대

아마추어 선전가로 구성된 "50 센트군"은 게시물당 0.5 위안 (미화 2 센트)을 받고 인터넷에 친정권 댓글이 넘쳐나게 한다. "소분홍"이라 불리는 트롤 부대는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 조직에는 최근 간혹 가짜 계정이거나 서구 언론인의 업무를 폄하하는 임무를 가진 외국 인플루언서 집단이 가세했다.

• "지정장소 주거 감시"

이 구금 체제는 2012년 테러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들어진 이 명칭은 단순한 자택 구금이 아니라 정권의 "검은 감옥"에 독방 감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방어 권리를 침해하고 종종 고문 행위를 수반하는 이 잔인한 처우는 독립 언론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에 베이징 당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끝내기 위해 채택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법 조항은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빌미가 되어왔다. 이 경우에는 "테러 활동",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 혐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언론인에게 자주 사용되는 이 혐의는 중국 본토에서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 "티 타임" 초대

검열이나 선전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기만적으로 악의 없는 척 제안하는 "티 타임" 초대는 중국 언론인과 외신 기자를 협박하는 검증된 방법이다.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난 이 만남은 체포 또는 제명 전 마지막 경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테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

2019년 10월 이후, 중국 언론인은 기자증을 발급받고 갱신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테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 (Study Xi, Strengthen the Country)을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도 모르게 명령을 실행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어 언론인과 그 취재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 매일 일어나는 정부의 지시

중국의 언론사와 인터넷 공기업 또는 사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부패, 사회 불안, 반체제 인사 등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4개 부처의 활동을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선전부는 언론에 매일 강조해야 할 주제 목록과 다루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주제 목록을 보낸다.

• 자백 강요

정권에 의해 구금된 언론인은 때때로 국영 텔레비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무죄 추정에 반대하는 행위이다. 비정부 기구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국영 채널은 2013년 이후 30명의 언론인과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하여 93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한 강제 자백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는 대부분 재판이 열리기 전이었다.



1

베이징 당국이 저널리즘에 전쟁을 선포한 방법

- 사상 테스트, 검열, 괴롭힘 : 2013년 초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중국 공산당은 언론인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해왔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국민통합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소된다.
- 금기시되는 주제를 조사하거나 검열된 정보를 게시하기만 해도, 비위생적인 교도소에 수년간 구금될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의 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인과 독립 언론은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저항하며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 강화



레드 라인의 확산

"2021년 7월 23일 ■ 허난성 등지를 강타한 폭우와 관련해서 보도의 초점을 재난 후 회복으로 전환한다. 사전 허가 없이 시신이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슬픈 어조를 취하거나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과장하거나 연결하지 않는다.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 통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당국의 정보를 엄격히 고수한다. ■ 정창 탈세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다. ■ 오늘 아침, 국무원은 코로나 19 원인 추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지가 2021년 7월 23일에 언론에 보내졌다. 온라인 언론사 China Digital Times에 의해 공개된 내용이다. 이 공지에서 언론인들은 이달 중국 중부 지역을 강타한 치명적인 폭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인을 조사하지 말고 공식 사상자 수를 질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전하는 바에 따르면 최소 302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실종되고 수십만 명의 이주가 발생했다). 또한,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정창(약 460억 원 벌금 부과)이 연루된 엄청난 탈세 사건과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팬데믹 원인 조사 프로젝트를 결렬시킨 것을 보도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매일 중국 공산당선전부는 이러한 지시를 모든 중국 언론에 보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미투 운동, 중국 대만 관계, 티베트 및 홍콩 시위;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없다.

© Noel Celis/AFP
© Lobsang Wangyal/ AFP
© Makoto Lin / Office of the President (Taiwan)

최근 몇 년간, 언론 취재가 금지된 주제인 "레드 라인"의 수가 급증했다. 언론인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부패, 사회 불안, 반체제 인사 등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중국 헌법 제 35 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기사의 선택과 취급에 당의 지침을 따르라는 강요를 하고 있다.

모든 주제가 검열을 받는다

자연재해에서 #미투 운동까지, 학생의 성생활에서 경제 및 재정 정책 또는 심지어 코로나 19 위기 동안 의료 전문가에 대한 인식까지, 이제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없다. 2020년 4월, 중국 미디어 프로젝트 연구 센터의 공동책임자인 데이비드 반더스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언론을 "체제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 Philip Fong / AFP

이제 언론인은 당국에 의해 이미 가공된 사건만 조사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언론인 차이 징이 중국의 오염 문제에 대해 1년간 취재해 발표한 다큐멘터리 언더 더 돔(Under the Dome)은 중국 비디오 플랫폼에서 공개 일주일만에 사라졌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중국 형법에 중국 역사적 사건의 공식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논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도입했다. 2020년 6월, 중국과 인도 군대 간의 폭력적인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 정권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정치 평론가이자 전직 언론인인 추이 지밍은 불과 두 달 후, "영웅 및 순교자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원성 및 개방성의 종말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국에서 검열이 항상 급증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말부터, 특히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후진타오 주석의 두 차례 임기 동안, 중국 언론은 경제 발전과 함께 찾아온 작은 자유의 혜택을 누렸다. 당시 많은 중국 언론이 탐사 보도와 다원주의적 의견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부패와 농촌 빈곤 같은 진보적인 기사를 보도하며 독립적인 논조로 유명했던 광저우 기반 신문사인 난팡 저우모(Nanfang Zhoumo)가 이끌었다.

2001년 "에이즈 마을"과 같은 부패와 공중위생 스캔들을 폭로한 차이나 이코노미타임스의 독자적 탐사 보도 기자 왕 커친과 그의 팀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보도를 통해 생존을 위해 혈액을 판 농촌 주민 20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 이들은 또한 2003년에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병을 폭로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언론에서 다루졌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탐사 보도 기자의 "멸종"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집권은 이 작은 개방을 끝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문화 대혁명의 희생자였던 시진핑 주석은 흡사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언론 문화를 부활시켰다. 후에 모든 "저속한" 콘텐츠로 확대된 "온라인 루머"에 대한 엄중 대처를 구실로 새로운 지도자는 순식간에 전문 미디어를 장악하는 동시에 비전문 언론인과 블로거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단행했다.

탐사 보도에 대한 정부의 "전쟁"으로 인해 언론인은 검열의 위험이 있거나 언론사와 편집자를 심각한 행정적 및 법적 문제에 빠뜨릴 수 있는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취재를 단념하게 됐다. 광저우에 있는 국립중산대학교의 연구와 미국 비정부 기구 프리덤 하우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탐사 보도 기자 수는 2011년과 2017년 사이 58% 감소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일 년간 구금되었던 쓰촨성 기반 언론인 류 후는 이 극적인 감소에 대해 2019년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멸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 대부분 언론은 이제 선전 기관이 보내주는 기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주안점

언론을 억압하는 "포켓 범죄 (pocket crimes)"

언론인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권은 "스파이 행위", "전복" 또는 "불화 도발 및 분란 조장" 등 세 가지 "포켓 범죄 (pocket crimes)" 혐의를 제기한다. 이는 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어서, 중국의 법 전문가들이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스파이 행위

- 정의: 중국 법은 국가 기밀을 " 국가의 보안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의하고, 산업 데이터 또는 당 지도부의 생년월일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잠재적 주제 목록을 제공한다. 목록이 너무나 철저한 나머지, 당국은 검열하길 원하는 모든 정보를 국가 기밀로 소급하여 기밀 취급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중국 형법 제 110 조 및 제 111 조 국가기밀보호법
- 최대 형벌: 종신형 ("누구든 국가 기밀을 국외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자, 더 일반적으로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로 알려짐) 및 무기징역 (스파이 행위)
- 추가 세부 정보: 국가 기밀 유출 혐의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있어 외교관이나 언론인 누구도 출석할 수 없다.
- 이 혐의로 현재 구금된 언론인 수: 최소 8 명
- 주요 대상: 호주 경제 뉴스 앵커 청레이와 호주 정치 평론가 양형원 등 중국 출신 외신 기자들은 각각 2020 년과 2019 년에 체포되었고, 스웨덴 출판사 구이 민하이는 2015 년에 구금되어 2020 년 징역 10 년을 선고받았다.

전복

- 정의: "누구든 국가 정치 권력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조직하고 음모하고 행동하는 자" 및 "누구든 루머를 퍼뜨리거나 비방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국가 정치 권력 파괴와 사회주의 체제 타도를 선동하는 자"
- 법적 근거: 중국형법 제 105 조
- 최대 형벌: 무기징역 ("전복") 및 징역 "징역 5년 이상" ("국가 권력 전복 선동")
- 추가 세부 정보: 법은 이 범죄 혐의를 붙이기 위해 잠재적 또는 실제로 일어난 체제 전복 활동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복"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종종 변호사나 친척의 면회를 거절당한다.
- 이 혐의로 현재 구금된 언론인 수: 최소 13 명
- 주요 대상: "구오관"과 같은 코로나 19 범유행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 정치 평론가들은 2020 년 1 월 31 일 이후 구금되었고 우간은 일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부패를 고발한 후 2017 년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불화 도발 및 분란 조장

- 정의: "누구든 도발적이고 교란시키는 행동으로 공공질서를 약화시키는 자", 더 일반적으로는 "불화 도발 및 분란 조장"으로 알려짐.
- 법적 근거: 중국형법 제 293 조
- 최대 형벌: 징역 5년 (재범 시 10년)
- 추가 세부 정보: 법은 "공공질서를 약화시킨다"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2013년에 이 법의 범위는 인터넷에 게재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더 넓어졌고 이를 전형적인 "포켓 범죄"로 만들어 정권을 방해하는 정보 게재를 금하였다.
- 이 혐의로 현재 구금된 언론인 수: 최소 9 명
- 주요 대상: 2020 년 8 월, 차이 웨이와 첸 메이 같은 비전문 언론인들이 검열된 코로나 19 유행병 관련 뉴스 기사를 다시 게시한 혐의로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다. 류 안리는 중국 주석에 관한 온라인 기사로 2020 년 4 월에 징역 4 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국경없는기자회 언론 자유상 수상자인 장 잔은 2020 년 12 월에 우한의 코로나 19 초기 단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시진핑 주석이 시찰에 나서자 중국 국영 언론의 언론인들이 "초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 Ma Zhancheng / AP

이데올로기 통제 지배

중국 언론인의 역할은 중국공산당 간부에게 주어진 선전 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본부의 내부 메모를 통해 2007년에 위키리크스에 공개되었다. "9호 문건"이라고 알려진 메모는 2013년 *도이체 벨레 (Deutsche Welle)* 외신 기자인 가오 유 (Gao Yu)에 의해 공개됐고, 그는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가택 연금 5년을 선고받았다.

선전 지침에 언론인은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을 세대를 이어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도구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절대적인 자기 검열을 표현하는 완곡한 어구인 "칭찬과 문제 폭로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9호 문건"에서 "서구식 저널리즘"은 "언론과 출판 시스템이 당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언론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언론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 3대 언론사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사)를 시찰하는 동안, 그는 주저없이 언론인에게 당 지도부를 따르고 "긍정적"인 보도를 위주로 "당의 의지와 계획을 전달하고 권위와 통일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즉, 공식 선전과 일치된 논조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국영 언론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며, (국영 언론이) "당을 가문의 이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



© Simon Song / South China Morning Post

개인 블로그 금지

불과 일 년 후, 언론인은 더 이상 개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편집자가 검열한 기사를 공유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당국에 의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소셜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인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중국에 본부를 둔 외국 언론사조차도 더 이상 온라인에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정보성 게시물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공식 성명에 "언론인" 대신에 "언론사 종사자" 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이 명칭 역시 중화전국언론인협회 (ACJA) 가 만들었다.

시진핑 사상 학습

2021년 10월 8일, 국무원 산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비공공 자본"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은 "해외 주체가 발표하는 뉴스" 를 포함해 "뉴스 수집, 편집 및 방송에 참여"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민간 투자 강화 계획을 제안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규제 및 언론 환경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독립적인 목소리도 침묵시킬 수 있게 된다.

일주일 후 신문출판총서는 전문 언론인에게 "시진핑 사상" 에 초점을 둔 "계속적인 교육" 을 연간 최소 90시간 이상 수료하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기자증을 갱신할 때는 이러한 교육 참여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록도 조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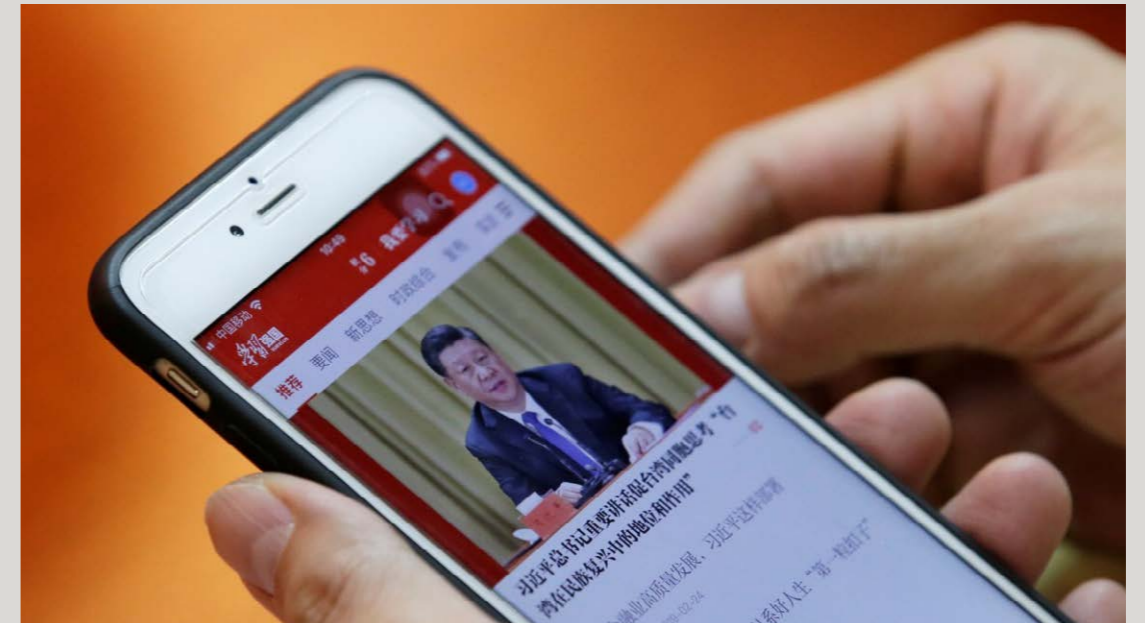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은 언론인으로 일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다. 언론인은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 *스터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 (Study Xi, Great Nation)* 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필두로 한, 완전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 언론인과 동료들에게 내려진 지시: "당의 의지와 계획을 전달하고 권위와 통일성을 지켜라."

© Nicolas Asfour / AFP

주안점



© Reuters

언론인에게 스파이 앱 다운로드 강요

"스터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 (Study Xi, Strengthen the Country)" 선전 앱은 정권이 사상에 대한 언론인의 충성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콘텐츠를 감시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이후, 중국 언론인은 기자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사상에 대한 충성도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시험은 오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시, 그레이트 네이션 \(Study Xi, Strengthen the Country\)](#) 에서만 치를 수 있기에 강제로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독일 사이버보안업체 Cure 53은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일 수정, 앱 다운로드, 전화 걸기, 장치 마이크 켜기 등의 기능도 있다.

국경없는기자회 (RSF)는 언론인이 언론인과 정보원의 보안을 손상할 수 있는 이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면 민감한 정보를 담지 않은 전용 장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감시에 반대하는 기자들의 혁신

탄압이 심해진 터라, 중국에 있는 언론인들은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고 취재를 하기 위해 전략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2019년에 국제 뉴스 웹사이트 *바이스 뉴스 (VICE News)*의 **이소벨 영 (Isobel Yeung)**과 그녀의 팀은 신장 위구르족의 탄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 다큐멘터리가 온라인에 게시되면 해당 언론인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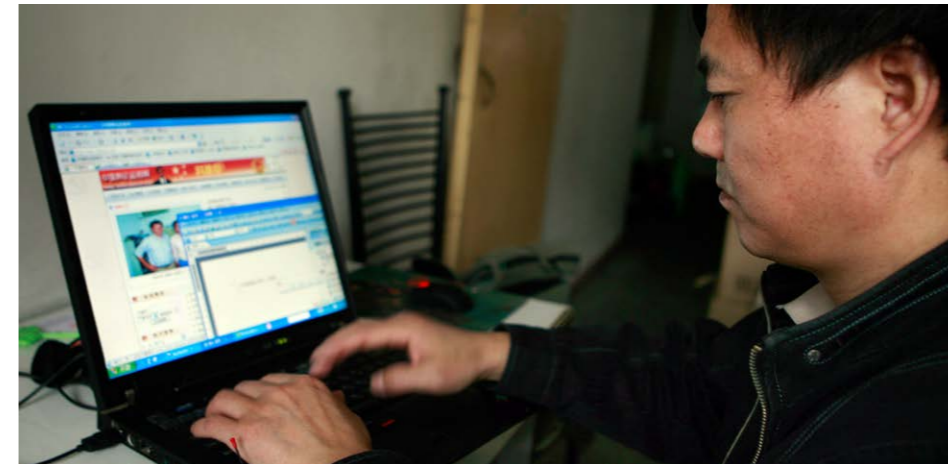
미국 공영 라디오의 전 상하이 특파원 **프랭크 랭핏**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다 발전된 위장 기술을 사용했다. 인터뷰를 대가로 무료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프랭크 랭핏은 신분을 숨기지 않고 승객들의 허락을 받아 송출용 방송을 만들었다.

중국 현지에서 언론 활동이 금지된 언론인들은 공적 정보도 활용해 취재를 한다. AP 통신 **야난 왕 (Yanan Wang)** 특파원, 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부편집장 **제임스 파머 (James Palmer)**, 프랑스 신문 르 몽드 (Le Monde)의 영상팀은 중국의 공공 조달 자료와 위성 사진, 소셜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사진 등을 교차 점검하여 신장 위구르족 탄압 실태를 원격 취재했다.

뉴욕 기반 언론사 **버즈피드 뉴스 (Buzzfeed News)**의 전 베이징 지사장이었던 언론인 **메가 라자고팔란 (Megha Rajagopalan)**은 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위구르족의 심각한 억류 실태를 입증한 공로로 동료 **앨리슨 킬링 (Alison Killing)**과 **크리스토 부첵 (Christo Buschek)**과 함께 [2021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대화를 위한 드라이브 : 미국 공영 라디오 (National Public Radio)의 상하이 특파원 프랭크 랭핏 (Frank Langfitt)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특별한 정보 교환법

© Kuan Yang



소셜네트워크, 공식 기록, 위성 사진: 현장 접근이 거부되면 언론인은 공적 정보를 취재에 사용한다.

© Teh Eng Koon / AFP

정보원 보호

언론인 자신과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 또한 주요 쟁점이 되었다. 베이징에서 전 *워싱턴 포스트* 직원이었던 **장 제 (Zhang Jie)**는 2017년에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선불 유심 카드와 중고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권운동가들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에서 티베트 뉴스를 취재하는 망명 언론인 **겔첸 초닥 (Gyaltzen Choedak)**은 2021년 3월에 당국이 침투할 수 있는 위챗 앱과 다른 중국 마이크로블로그에서 정보원과 대화할 때 항상 음성 왜곡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위챗은 티베트 디아스포라, 특히 언론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데이터 노출의 위험 때문에 여러 대의 전화를 사용하고 암호화된 언어로 말해야 한다. 2021년 발간된 망명 티베트 매체에 관한 연구 논문은 이것이 익명의 기자가 감시 위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표현 예방책

취재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중국 언론인에게 검열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편도 티켓일 수 있다. 광저우시의 *사우선 메트로폴리스 데일리 (Southern Metropolis Daily)*, *난팡 저우모*, *양성 이브닝 뉴스 (Yangcheng Evening News)*와 같은 주요 언론사는 **중국 법률 전문가에게** 조사에 불려갈 수 있는 위험 평가와 어휘 선택에 관한 조언을 요청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법에 따라 문제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실 공식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기 위해 공식 표현을 사용한다."

언론인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대중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예방책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간부를 직접 지명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제안의 형태로 비판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게시한다

검열에 직면한 언론인은 은밀한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 의해 거부당하면 중국 기자들은 외신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호주에 본부를 둔 중국인 언론인 **비키 쉬 (Vicky Xu)**가 2019년에 뉴욕 타임스에서 위구르족 박해에 관해 보도한 것이 한 예이다. 부정적인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협박과 함께 2021년 4월 전국적인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에 익명으로 올리는 게시물은 검열될 때 언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탐사 보도 기자 **황쉐친 (Huang Xueqin)**의 친척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2021년 9월에 황쉐친이 체포된 후, 그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깃허브에 익명의 계정을 통해 해시태그 #FreeXueBing과 함께 그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검열에 맞서는 언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이징 당국의 검열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다른 국가에 있는 많은 독립 언론이 중국어권 세계의 당면 사안을 계속 취재해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1 - 중화 인민 공화국

차이신
 2009년에 베이징에 설립된 주간지 *차이신*과 차이신의 중국어, 영어 웹사이트는 중국에서 가장 독립적인 주류 언론으로 평가되며 정권의 레드 라인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다. 2020년에 검열이 강화되었음에도 *차이신*의 취재는 우한의 공식적인 코로나 19 사망자 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차이신*은 뉴스 출처로 인용될 수 있는 언론의 공식 목록에서 **제거**되었다.
caixin.org

중국 시민 운동
 중국 작가이자 정치 평론가인 쉬즈용이 구금된 후, 2014년 설립된 이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중국의 시민 사회와 인권 뉴스를 다루고 있다.
cmcn.org

중헌 (대중을 위한 정보)
 2018년에 만들어진 이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비전문 중국인 언론인이 보도하며 정권이 검열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zhongxuncn.blogspot.com

64 텐왕
 1998년에 만들어진 이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중국의 인권 침해 수만 건이 기록되어 있고 2016년에 **RSF 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설립자인 탐사 보도 기자 황치는 2004년 RSF 언론자유상을 수상했고 현재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64tianwang.net

웨이취안왕 (권리 옹호 네트워크)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관리하는 이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2008년 이후 사회 운동가와 언론인의 체포, 실종 및 불법 구금 등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알려왔다.
wqw2010.blogspot.com

민성관차 (시민권과 생활 감시)
 2006년에 만들어진 이 중국어 사이트는 노동자와 교사를 포함한 노동자 계층에 대한 학대와 대도시의 강제 퇴거를 다룬다. 설립자인 류페이유는 2019년 "전북 선동"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msguancha.com

2 - 홍콩

시티즌 뉴스
 이 중국어 비영리 온라인 언론은 10명의 홍콩 언론 베테랑 그룹이 2017년에 만들었다. i-CABLE 채널에서 방송되었던 유명한 "차이나 비트"의 전 제작진과 협력해 중국 시사 TV 프로그램을 2021년부터 제작해오고 있다. 2022년 1월 4일 폐간됐다.
hknews.com

홍콩 프리 프레스
 2015년에 홍콩에서 설립된 홍콩 프리 프레스는 비영리 클라우드펀딩 영어 뉴스 웹사이트로 중국어권 세계의 뉴스를 다룬다.
hongkongfp.com

인미디어
 2004년에 설립된 이 온라인 중국어 언론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뉴스 및 미디어 플랫폼"으로 칭하며 비전문 홍콩 언론인의 기사를 기고받아 보도한다.
inmediahk.net

스탠드 뉴스
 홍콩에서 2014년에 설립된 이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중국 정치와 사회를 다루며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 정의"의 가치를 지지한다. 하지만 2021년 12월 29일 폐간됐다.
thestandnews.com

3 - 대만

리포터
 2015년에 설립된 이 대만 기반 중국어 비영리 뉴스 사이트는 중국어권 세계를 보도하고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장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로 2020 홍콩 인권 언론상을 포함하여 62개의 언론상을 수상했다.
twreporter.org

4 - 싱가포르

이니티움 미디어
 홍콩에서 2015년 만들어진 이 종합적인 중국어 온라인 언론은 저널리즘 2020년 아시아 발행인협회(SOPA)로부터 저널리즘으로 4개의 상을 수상했다. 압력을 피하고자 *이니티움 미디어*는 2021년 8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theinitium.com

5 - 인도

티베트 포스트
 다람살라 (인도 북부)의 망명 티베트인 언론인 단체가 2007년에 설립한 이 3개 국어(영어, 티베트어, 중국어) 뉴스 웹사이트는 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인권 침해를 다룬다.
thetibetpost.com

6 - 미국

보쑤 뉴스
 이 중국어 뉴스 사이트는 1998년부터 비전문 중국인 언론인이 전염병, 인권 침해, 부패 스캔들 및 자연재해 같은 정권이 검열하는 정보에 관한 기사를 보도해오고 있다.
boxun.com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
 2003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 중국어, 영어의 이중 언어 온라인 언론은 선전부 지시, 공식 수사 및 검열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통역하여 중국의 선전, 검열 및 사이버 감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Chinadigitaltimes.net

밍징 뉴스
*밍징 뉴스*는 중국 정치, 비즈니스, 사회 문제 및 역사를 다루는 참여형 뉴스 사이트이다. 2014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강에 대한 정부 비밀 수사 정보를 공개한 후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저우융강은 비공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Mingjingnews.com

표적이 되는 언론인



공무원의 부패를 고발하거나 풍자만화를 출판하거나 인권을 옹호한 언론인은 종종 법정에서 서게 된다.

사라져가는 독립 언론

2013년 초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마오쩌둥 시대가 저문 이후 볼 수 없었던 체포의 물결이 전국의 언론인과 정치 평론가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10년간 중국 언론계에 나타났던 다원성 실험과 논쟁이 돌연 끝이 났다. 2021년 RSF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은 180개국 중 177위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보다 겨우 두 단계 앞서는 수준이며, 억류 중인 언론인만 해도 최소 127명이다.

2004년 RSF 사이버 자유상을 수상한 인권 뉴스 웹사이트 64 텐왕의 설립자인 탐사 보도 기자 **황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취재 혐의로 2016년 체포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쓰촨성의 면양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30일 전 중국 관영 언론 종사자인 언론인 **첸지엔**은 다수의 공산당 간부가 연루된 부패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후난성 구이양 인민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풍자만화로 유명한 만화가 장 예페이는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명한 언론인이자 언론 자유 옹호자인 **친 용민**은 "전복"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가혹한 판결

비전문 언론인들 또한 기소를 면하지 못했다. 블로거 **우간**은 2017년 말 화베이 지역의 텐진 법원에서 정부의 부패에 관한 인식을 높인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웹사이트 **민성관차**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류 페이유**는 2019년 1월 후베이성의 쑤이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경이나 국적도 중국 정권을 제지할 요소가 되지 못한다. 현재 **3명의 외신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억류 중이다.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CGTN)의 저명한 호주 출신 경제 뉴스 앵커 **청레이**는 2020년 8월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구금되었다. 호주인 정치 평론가 **양형원**은 비슷한 혐의로 작년 체포되어 구금 중이다. 스웨덴 국적의 홍콩 출판업자 **구이 민하이**는 2015년 태국에서 납치된 후, 2020년 비슷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문과 학대

비위생적이고 투명성 없이 관리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중국의 감옥에서는 갖은 학대가 벌어진다. 구금된 언론인은 거의 조직적으로 혹사당하며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한다. 관광 가이드이자 티베트 자치구 주요 소식통이었던 **쿤 초크 진파**는 2013년 체포당한 뒤 구금 중에 당한 **학대**로 2021년 2월 6일, 5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쿤초크 진파는 고향 티베트 북쪽 지구 디루의 시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언론에 제공했다가,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라사 감옥에서 21년간 복역했다.

2010년 노벨평화상과 2004년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와 블로거 **양통옌**은 구금 중에 암에 걸렸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17년 세상을 떠났다. RSF 집계에 따르면, 언론 자유를 수호하다 현재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중 최소 10명은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태다.



상징적인 재소자 10명



일함 토흐티, 51세

직업 : 정보 웹사이트 위구르 온라인의 설립자
 구금 도시 : 우루무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판결 : "분리주의" 혐의로 종신형 (2014년 9월)
 원인 : 정부 비판
 건강 상태 : 심장 질환 및 폐 질환, 체중 감소. 2018년 말 이후 정보 없음.



굴미라 이민, 43세

직업 : 뉴스 사이트 샬킨의 전 관리자
 구금 도시 : 우루무치 (신장 위구르 자치구)
 판결 : 처음에는 "분리주의" 및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됨 (2010년 4월). 2017년에는 징역 19년 8개월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짐.
 원인 : 정부 비판
 건강 상태 : 2010년 재판 전에는 학대 및 고문의 희생자였음. 2010년 이후 정보 없음.



루 잔화 (웬유), 60세

직업 : CCTV, 봉황 TV(Phoenix TV),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정치 평론가
 구금 도시 : 엔자오의 연청 감옥 (하북성 지방)
 판결 : "국가 기밀 공개" 로 징역 20년 (2006년 12월)
 원인 :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 논평
 건강 상태 : 비정기구 독립신문필회는 건강이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함. 당국은 의료 기록 요청을 거부함.



장 하이타오, 49세

직업 : 보신, 자유아시아방송, 미국 소리의 정치 평론가
 구금 도시 : 사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판결 : "전복 선동" 및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징역 19년 (2016년 1월)
 원인 : 소셜 미디어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정권의 행동 비판
 건강 상태 : 구타를 당하고 6개월간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차야 했음. 음식 박탈의 희생자. 2018년 4월 이후 정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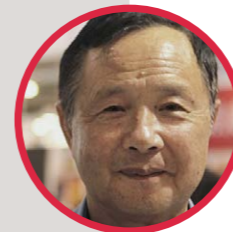
첸 용민, 68세

직업 : 정치 평론가이자 중국 휴먼 라이츠 워치 및 로즈 차이나 뉴스 레터의 편집장
 구금 도시 : 우한 (후베이성)
 판결 :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13년 (2018년 7월)
 원인 :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에 대한 생각 제시
 건강 상태 : 지난 수십 년 동안 20년간의 구금과 노동 수용소로 심하게 약해져 재판 중에 의식을 잃음. 2019년 건강이 더욱 악화함.



황치, 58세

직업 : 정보 웹사이트 64 텐왕의 설립자
 구금 도시 : 바중 (쓰촨성)
 판결 : "국외에 국가 기밀 공개" 혐의로 징역 12년 (2019년 7월)
 원인 : 중국 국가 기구에 의한 학대 피해자들에 대해 토로함
 건강 상태 : 8년간의 감옥 생활과 노동 수용소로 심장과 간 합병증 발생. 폭행과 계속되는 부상.



이 만티안 (야오 원티엔), 76세

직업 : 모닝 벨 프레스 출판사의 창립자
 구금 도시 : 동관 (광둥성)
 판결 : "금지품 밀수" 혐의로 징역 10년 (2014년 5월)
 원인 : 시진핑 주석에 관한 책 출판 시도
 건강 상태 : 천식, 심장 질환, 전립선암, B형 간염. 5번의 뇌졸중을 겪었지만 의료 가석방 신청이 기각됨. 2017년 11월 이후 정보 없음.



Gui Minhai (마이클 Gui), 57세

직업 : 코즈웨이 베이 서점과 마이티 커런트 출판사의 주요 주주
 구금 도시 : 닝보 (저장성)
 판결 : "국외에 기밀 정보 불법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 (2020년 2월). 2015년부터 구금됨.
 원인 : 시진핑 주석의 사생활에 관한 책 출판 시도
 건강 상태 : 심각한 신경 질환 증상. 영사법을 무시하여 대사관 (1996년부터 스웨덴 시민)에서 진찰받는 것을 금지.



우간, 49세

직업 : 인권 옹호자이자 트위터 평론가
 구금 도시 : 칭류 (푸젠성)
 판결 :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8년 (2017년 12월)
 원인 : 공산당 간부의 부패에 관한 해학이 담긴 논평
 건강 상태 : 고문과 수면 박탈의 희생자로 구금 중에 15kg 감소. 2019년 3월 이후 정보 없음.



장 예페이, 53세

직업 : 정보 웹사이트 보원의 만화가
 구금 도시 : 충칭 (쓰촨성)
 판결 : "전복 선동" 및 "불법 국경 횡단" 혐의로 징역 6년 (2018년 7월)
 원인 : 중국의 인권 침해에 관한 풍자만화를 그림
 건강 상태 : 고문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알려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언론 봉쇄

베이징 정권은 2016년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억압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위구르족인 투르크계 이슬람 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는 사상 초유의 언론 봉쇄도 수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적어도 100만 명이 강제 수용소와 유사한 "직업훈련소"에 강제 구금된 상태다.

2021년 6월 프랑스 일간지 l'Opinion 기자가 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루 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는 순진한 태도와 심한 불쾌감 사이를 오가며 답했다. "'학살'이나 많은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왜 아무도 소셜 미디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겠는가? 신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외교관, 언론인이 정말 많다. 물론 서양 기자도 있다. 긍정적인 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을 굽어모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시 루 샬예 대사는 신장을 방문할 수 있는 소수의 외신 기자들이 여전히 면밀한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인터뷰할 수 없다는 것, 보도가 베이징 당국을 불쾌하게 만들 경우 중국 입국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버즈피드 뉴스의 중국 지사장 **메가 라자고팔란**은 비자 연장을 거부당하고 **강제로 중국을 떠나야**만 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녀는 신장을 "감시를 위한 실험실의 최전선"이라고 묘사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검열을 거부하는 중국 언론인은 엄청난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세계언론상을 두 차례 수상한 사진기자 **루광**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로 현지 사진기자들을 만나러 간 이후 사라졌고 2018년 감금되어 주거 감시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평의회의 하벨상과 사하로브상을 수상한 위구르 언론인이자 학자인 일함 토흐티는 2014년부터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뉴스 사이트 **살킨의** 전 관리자 굴미라 이민은 2010년부터 복역 중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구금 상태가 아닌 언론인도 사소한 움직임까지 통제된다.

© Johannes Eisele / AFP



2016년에 공식적으로 "반-테러" 탄압을 시작한 이후,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해 수백 명의 위구르 지식인을 **체포했다**. 2019년 5월 비정부기구 위구르 인권프로젝트(UHRP)는 정권이 최소 58명의 언론인, 편집 출판인을 구금했다고 **폭로했다**. 2021년 11월 RSF는 중국에 억류된 언론인 및 언론 자유 옹호자 127명 중 절반 이상인 71명이 위구르족 언론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뷰

"정권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압박한다"

미국 의회의 출자로 설립된 민영 방송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위구르 담당 기자로 2019년 마그니츠키 인권상과 2020년 국제여성언론재단의 용기 있는 언론인상을 수상한 굴체라 호자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말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언론 상황은 어떠한가?

"최근 신장을 취재하는 매체에 가해지는 규제는 지역의 정보 보도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고, 그 결과 독립적인 보도는 주로 중국 이외 지역에 있는 언론 매체에서 나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랐고 현지어를 할 수 있어서 동료와 나는 정권의 선전에 대항하고 이 지역의 실제 상황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독립적인 정보를 보도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우리가 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길 원하는 것이다."

어떤 공격을 당하는가?

"우리에게 직접 닿을 수 없으므로 정권은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압박하고 있다. 내가 2001년 미국으로 이사한 후, 중국 정부는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심문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친척이 갑자기 위협 채팅방을 나갔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동생이 중국 정부에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8년 2월 3일 부모님과 다른 친척 24명이 체포당했다. 현재는 위구르 담당 스테프의 모든 가족이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구금되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위구르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위구르족과 소수 이슬람교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도하는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이 정보는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학살을 고발하는 데 기여한다."

© D.A. Peterson / 미국무부

원치 않는 목격자, 외신 기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년 7월 29일 기자 회견에서 BBC(영국방송공사)를 겨냥해 "저널리즘의 윤리에서 크게 벗어나 중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방송사"라고 비난했다. 이는 중국 중부 허난성 홍수를 취재하던 BBC,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도이체 벨레 등의 외신 기자에게 가해졌던 물리적 괴롭힘과 온라인 위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특히 중국 공산당 청년동맹에 의해 수행되었다.

중국 정권이 영국 공영 방송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2021년 2월 4일 공식적으로 해당 방송사의 중국 내 방송 허가를 취소시켰다. 한 달 후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슬람교도 강경 탄압을 취재한 것에 불만을 가진 당국의 반복적 위협으로 인해, 9년간 BBC 중국 특파원으로 일한 존 서드워스가 중국을 떠나야만 했다. 서드워스는 2017년에는 2억 대 가량의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스카이넷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한 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로부터 "정치적 편견과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금기"의 끝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가 정치나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상황이 달랐다. 외신 기자와 그들의 중국인 동료는 어느 정도나마 취재의 자유를 누렸다. 공적이든 아니든 업무에 필요한 취재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당국에게는 이것이 필요악이었다. 가끔 당국이 나서서 교란시키는 정보가 있긴 했지만, 외신의 기사는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와 사업 파트너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20년 후,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에서 외신의 "황금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독립 저널리즘에 전쟁을 선포하고 가장 강력한 선전기구를 가진 중국 정권은 외신 기자를 원치 않는 침묵의 목격자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 외신기자클럽(FCCC)은 2021년 3월 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 위기와 함께 괴롭힘이 심

이미 심히 폭력적이었던 외신 기자에 대한 괴롭힘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더욱 심해졌다.

© Thomas Peter / Reuters



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은 감시와 함께 점점 더 비자 발급에 대한 압력을 사용하고 있다. 외신 기자에 대한 진정한 협박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2020년에는 18명 이상의 외신 기자가 강제로 중국을 떠나야 했다.



© BBC

정보원에 대한 압력

괴롭힘은 언론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직원과 정보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020년 12월 7일 국제 언론 매체 CNBC, CBS 뉴스, 알자지라, 톰슨로이터를 거친 중국 국적의 블룸버그 뉴스 보조원 헤이즈 팬은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베이징 국가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현재 공판 기일도 없이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언론인에게 필수적인 취재원 또한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며,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거의 항상 익명을 요구한다. 중국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물이자 퇴임 교수인 선 웬광(84세)은 2018년 미국의 소리와와의 라이브 전화 인터뷰 도중 지난(상동성)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인질로 잡힐 위험

외신 기자들에게는 중국에서 추방되는 것보다 해당 국가에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인질로 잡히는 것이 더 큰 위험 요소다. 중국계 외신 기자 세 명은 스파이 혐의로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 스웨덴 국적의 홍콩 출판업자 구이 민하이(2020년부터 징역 10년을 복역 중이다) 호주 국적 언론인 양형권과 청레이는 각각 2019년, 2020년에 체포되어 공판 기일도 없이 구금된 상태다.

2020년 9월 3일 호주인 특파원 빌 버틀스(ABC 뉴스)와 마이클 스미스(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는 청레이 사건 취재 후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도피해야 했다. 두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9월 7일에서야 중국을 떠날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의 외신 기자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면서, 기자가 취재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한편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해와 보도도 제한되고 있다. 2020년 2월 3 추방당한 조쉬 진 전월스트리트저널 베이징 부지국장은 같은 해 8월 영어 온라인 잡지 차이나파일의 기사에서 "기사를 평범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2

홍콩 : 언론 자유의 몰락

- 2020년 베이징에서 도입한 국가보안법은 홍콩 정부가 최소 12명의 언론인과 언론 자유 옹호자를 기소하고 이 중 10명이 구금되는 한편, 중국어권 최대 규모의 야권 신문인 빈과일보를 폐쇄할 빌미가 됐다.
-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공영미디어그룹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 (RTHK) 과 같은 언론 자유의 상징을 탄압하는 한편, 언론인에 대한 폭력을 외면하고 있다.

독립 언론 탄압

비용을 개의치 않는 "국가 보안"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언론 자유의 원칙은 홍콩을 통치하는 기본법에서 2047년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한 세대 만에 홍콩은 RSF 세계언론자유지수 2002년 18위에서 2020년 80위로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다.

이 기간 베이징은 홍콩 내 중국어 매체 일부를 **점진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다른 매체에 대해선 광고주를 통해 압박하는 간접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상황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유지 보호 국가안전법"을 채택하며 더 악화되었다.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진 조항은 "테러 활동",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같은 범죄에 대해 합법성을 가장한 자의적 기준으로 체포 및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5월 미국 TV 채널 CNBC와 인터뷰한 홍콩 대학 저널리즘 및 미디어 연구 센터 소장 **키스 리치버그**는 이 법이 홍콩의 언론 자유를 천천히 멸종시키고 있다며, 이를 고대 중국의 끔찍한 고문 방식인 "능지형"에 비유했다.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12명의 언론인과 언론 자유 옹호자가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 Anthony Wallace / AFP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범죄"

중국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이나 모두 모호한 이 법은 제정 직후 발효되었으며 홍콩특별행정구를 취재하는 모든 언론인에게 거주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 38 조).

홍콩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경우 언론인은 무기징역과 같은 가혹한 형벌까지 받게 되며 "인도"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은 국가 보안 범죄로 사형까지 선고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피고인을 옮겨 재판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 55 조). 법은 또한 특정 재판은 언론과 대중에게 비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놓고 있다 (제 41 조).

법 집행을 위해 베이징 정권은 언론과 외신 기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제 54 조) 홍콩에 국가안전유지공서를 설치하고 (제 48 조), 지방 법원 관할권 밖에서 운영되는 (제 14 조)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했다 (제 12 조). 자유롭게 언론인과 취재원을 협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연기된 프로젝트

홍콩이 중국에 관한 정보의 주요 관문이 된 1990년대에도 중국 본토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들은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1994년 명보신문의 기자 **시양**은 중국중앙은행의 주식 시장 전략을 폭로한 후 "국가 금융 기밀을 훔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유죄 판결 이후 홍콩 언론인들은 일련의 시위를 벌였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지 5년 만인 2002년에 홍콩 정부는 베이징의 압력 하에 국가에 대한 범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채택을 **처음으로** 홍콩 의회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규제가 정치, 종교, 언론의 자유에 가져올 직접적인 위협을 우려한 50만 홍콩 주민의 거리 시위 이후 빠르게 철회됐다.

2014년 홍콩 주민들은 특히 보통 선거에 기반한 의회 선거를 포함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다시 한번 **거리를 점거했다**.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79일 동안 시위대는 도심을 평화적으로 점거했지만, 경찰의 폭력 진압을 당했다. 베이징 정권은 언젠가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홍콩 정부와 함께 훗날 안보법이 된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역지로 밀어붙이다

2019년 초 새로 임명된 캐리 램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 "2019년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 법안"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홍콩에서 범죄로 기소된 거주자 또는 방문객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론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범죄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배제하고 있지만, 홍콩 주민들은 홍콩의 대표가 베이징의 요구 특히 언론인이나 사회운동가가 관련된 요구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해 봄 홍콩 주민들은 다시 거리를 점거했다. 6월 9일 100만 명의 사람이 참여했고 6월 16일에는 그 수가 150만에서 200만 사이로 늘었다. 이는 거의 노동 인구 2명당 1명꼴로 거의 750만 명이 거주하는 홍콩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었다. 홍콩 행정부는 다시 한번 법안을 포기해야 했다. 베이징 정권에겐 이런 굴욕이 한계점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위기 속에서 베이징은 특별행정구에 부여된 자치권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채택했다.

주안점

국가에 대한 4 가지 범죄

국가보안법의 "국가에 대한 4 가지 범죄"는 너무 모호해서, 어떻게 해석해도 언론인을 침묵시킬 수 있다.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 **최대 형벌:** 무기징역
- **정의:** "적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국가 기밀 또는 정보 제공"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외국 세력과 공모"하는 행위, 외국이나 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행위
- **중국의 선례:** 베이징의 선전은 외신을 본부가 있는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하는 정부 요원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한다. 2020년 외신 기자 최소 18명이 중국에서 추방되었다. 2021년 외신 기자 최소 3명이 스파이 행위 혐의로 중국 정권에 의해 억류되었다.
- **홍콩의 집행:** 2020년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는 이 범죄로 기소되었다. 2021년 빈과일보 언론인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외국 세력과 결탁"하기 위해 라이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홍콩 캐리 램 행정장관은 외신과 심지어 외국인이 설립한 홍콩 언론도 서구 정부의 대변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복

- **최대 형벌:** 무기징역
- **정의:** 중국의 "기본 체제"를 "전복 또는 약화"하거나 중국 중앙 권력이나 홍콩 권력 기관의 임무 수행을 심각하게 "간섭, 교란 또는 약화하는 행위".
- **중국의 선례:** 최소 13명의 언론인이 "국가 권력 전복" 및 "파괴 선동" 혐의로 구금되었다.
- **홍콩의 집행:** 언론 자유 옹호자 클라우디아 모와 그웬니스 호 콰이 램은 영토의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지지했다가 2021년 이 범죄 혐의로 구금되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긴 기사나 취재 기사를 쓴 언론인뿐만 아니라 독립을 지지하는 행위를 보도하거나 독립 지지 활동가의 말을 인용하는 언론인은 이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중국 외신기자클럽 (FCC)이 주최하고 독립 지지활동가가 출연한 토론회에서 사회자를 맡았다는 이유로 2018년 홍콩에서 추방된 언론인 빅터 말렛은 당시 보안법이 존재했다면 "국가분열" 혐의를 받았을 수 있다.
© Paul Yeung

국가 분열

- **최대 형벌:** 무기징역
- **정의:** "민족 통합 약화" 및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분리시키는 것"
- **중국의 선례:** 중국 본토에서 이 범죄는 종종 "분리주의"와 결합되고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장려하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인과 같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언론인이자 학자인 일함 토흐티는 2014년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홍콩의 집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의 문화 정체성이나 독립 지지 운동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는 모든 언론인은 "분리주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지국장 빅터 말렛은 중국 외신기자클럽 (FCC)이 주최하고 독립 지지활동가가 출연한 토론회에서 사회자를 맡았다는 이유로 2018년 홍콩에서 추방됐다. 이때 보안법이 존재했다면 말렛은 "국가 분열" 혐의를 받았을 수 있다.

"테러 활동"

- **최대 형벌:** 무기징역
- **정의:**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이를 의도하는 행위"
- **중국의 선례:** 현재 최소 71명의 언론인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집단에 대한 베이징 탄압의 일환으로 테러 관련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신장 교육 출판부의 전 편집장 와히트잔 오스만은 "분리주의 및 테러리스트 이데올로기"를 장려한 혐의로 2016년부터 구금되었다.
- **홍콩의 집행:** 중국 정권과 홍콩 행정부는 보통 민주화 운동을 "테러"로 지칭하기 때문에 시위 현장 보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테러 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러한 운동을 보도하는 외신 기자는 "테러 행위 지지" 혐의로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

언론인, 새로운 이단자



© Anthony Wallace / AFP

2023년 5월 29일 홍콩성시대학의 학생지 부편집장 왕가호와 온라인 언론 패션 타임스 기자 **마 카이 충**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폭동" 혐의로 형사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 두 언론인은 2019년 7월 1일 50만 명 이상이 집결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의 일환이었던 홍콩 의회 습격을 취재하다 체포되었다. 단순히 자신의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두 언론인을 법정에서 세우는 것은 홍콩의 언론 자유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집계된 바에 따르면, 12명 이상의 홍콩 언론인과 언론 자유 활동가들이 국가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고 이중 10명은 구금된 상태다. 또 다른 언론인 4명은 국가 보안 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영국 TV 채널 ITV의 프리랜서 기자 **월슨 리 총 차크**는 국가보안법 발효 한 달 만에 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홍콩 언론인이다. 월슨 리 총 차크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외국 세력과 결탁" 혐의의 기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폐간된 일간지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는 보석 석방 기회도 받지 못했고 아직도 "외국 세력과 공모"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빈과일보**에서 일했던 6명인 최고경영자 **청킴흥**, 총 편집자 **람만칭**, 부편집장 **찬 푸이만**, 편집장 **렌 라 와이 썩**, 논설위원 **평 웨이 콩**과 **영청기**(각각 로핑과 리핑으로 알려져 있음)도 구금 상태다.



이제 언론인은 그저 직업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 Stand News

홍콩의 언론 자유를 지지하던 2명도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다. 이들은 "전복 음모"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 한명은 전 국회의원이자 언론인인 **클라우디아 모**. 다른 한명은 2019년 7월 21일 원룡 지하철역에서 민주화 시위대, 언론인, 통근자를 친 베이징 세력이 공격하는 것을 생중계한 전 정치인인 **스탠드 뉴스** 기자 **그웨니스 호 콰이 람**이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영국 식민 시대에 사용되다 1970년대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던 선동 조항을 부활시켰다. 이를 통해 "익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라디오 진행자 **완이우싱**을 기소했다. 2020년 11월부터 수감된 이 언론인은 보석을 두 차례 거부당했고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1968년 설립되어 유서가 깊은 홍콩기자협회(HKJA)도 "감히" 정부가 탄압하는 언론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 2021년 9월 홍콩 보안장관이자 전직 경찰청장 크리스 탕은 이 협회가 "학교에 침투"해 "학생 기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언론인인 클라우디아 모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지한 혐의로 무기징역 위기에 처해있다.

© Peter Parks / AFP

주안점

무기징역 위기에 처한 RSF 상 수상자 지미 라이

빈과일보 창립자이자 2020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인 지미 라이는 지난 30년간 홍콩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거침없이 옹호해왔다. 2020년 12월부터 구금된 지미 라이는 국가보안법이 표적으로 삼은 첫 언론 관계자로 무기징역 위기에 처해 있다.

지미 라이 (73세)는 2021년 4월 12일 감방에서 보낸 편지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썼다. 지미 라이가 창간한 **빈과일보**에 대한 홍콩 정부의 후속 공격을 예상하면서 직원들에게 "고개를 당당하게 높이 들 것"을 요청했다.

2020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 지미 라이는 홍콩 언론자유 역사의 지주이다.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로 **무기징역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2020년 12월부터 구금된 그는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가 받지 않은" 시위를 세 차례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이미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오쩌둥의 중국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에 직면했을 때 12살에 홍콩으로 도망친 라이는 옷 가게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독학했다. 1981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했고 빠른 국제 확장으로 재산을 모았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때 지미 라이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헌신하기로 했다. 1990년에는 주간 중국어 매거진 **넥스트 매거진**을, 1995년에는 빈과일보 신문을 창간했다.

지미 라이와 그가 창간한 언론은 당국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몇 가지 범죄의 표적이었다. 2013년에는 자동차 공격을 받았고 당시 가해자들은 경고로 도끼와 칼을 남겨두었다. 2015년에는 복면을 쓴 사람들이 그의 자택과 신문사 본사 건물에 화염병을 던졌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때 라이는 또 다시 거리에서 공격을 받았고 자택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 Isaac Lawrence / AFP



"폭우 속에서 홍콩인들이 빈과일보에 작별을 고하다": 마지막 판은 100만 부가 팔렸다.

© Apple Daily

빈과일보 폐간

2021년 6월 17일 이른 새벽에 경찰관 500명이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인쇄 매체 중 하나인 빈과일보의 넥스트 미디어그룹 본사를 포위했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폭탄 경고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홍콩에서는 미디어 그룹 때문에 이렇게 **물러들었다**.

베이징의 명에 따라 경찰은 빈과일보를 급습했고 언론인의 컴퓨터, 휴대폰, 기타 장치를 압수하여 뉴스실을 떠나게 했다. 급습과 동시에 경찰은 신문사의 주요 간부를 집에서 체포했다. 같은 날 정부는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디지털의 자산 동결을 발표하여 직원과 공급사에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곧 문을 닫아야 했다.

일주일 후 6월 24일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발행했다. 당일 이 마지막호는 통상적인 하루 판매량의 10배에 달하는 100만 부의 발행부수를 기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된 26년 역사의 신문을 지지하기 위해 밤새도록 가판대 앞에 줄을 섰다. 이 매체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괴롭힘과 2020년 12월 창립자 지미 라이 구속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홍콩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 덕분이었다.

2021년 9월 초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디지털은 청산을 신청했으며 이사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임했다. 그달 말, 정부는 넥스트 디지털 폐업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



© Anthony Wallace / AFP

주안점

홍콩 언론인의 딜레마, 머물 것인가 감옥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외신기자클럽 (FCCHK) 이 202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콩에 거주하는 언론인의 거의 절반이 특별행정구를 떠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RSF와의 인터뷰에서 그들 중 일부가 떠나거나 아니면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말했다.

2021년 6월 27일 홍콩 공항에서 빈과일보 논평 기사가 체포된 지 이틀 후, 온라인 언론사 *홍콩 프리 프레스*의 전 편집장 크리스 쳡은 홍콩을 떠나겠다는 괴로운 결정을 내렸다.

쳡은 "그 체포는 많은 언론인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공영 방송 미국의 소리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거리와 시차로 인해 쳡은 안타까운 마음이 큰 홍콩 뉴스를 거의 다루지 못한다. "현재 홍콩의 많은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법원에서 기소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며 나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민주화 시위대, 언론인, 통근자에 대한 친베이징 3인조의 공격 당시 경찰의 태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허위 주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탐사 보도 기자 **바오 초이** (사진 가운데 오른쪽)도 미국 저널리즘 펠로우십을 위해 홍콩을 떠났다. 바오 초이는 이 공백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망명은 생각지 않고 있다. 바오 초이는 "언론인으로서 체포될 수도 있다 해서 마냥 도망칠 수는 없다. 기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다"고 말했다.

홍콩기자협회 (HKJA) 회장 론슨 찬은 언론인들이 이주하거나 잔류하기로 한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고있다. 찬은 "많은 이들이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홍콩의 악화하는 정치 풍토에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일부는 외국에서 언론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쉽게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들이 여행을 제한하게 된 코로나 19 팬데믹 또한 이주를 고려하던 언론인들의 선택지를 줄여놓았다.

홍콩에 거주하는 언론인 대부분은 자신의 앞날을 우려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홍콩을 운명에 맡겨두려 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청한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의 홍콩 기반 편집자는 "우리는 끊임 없이 잠재의식적인 자기검열을 떨쳐내야 하지만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윤리 강령과 언론의 기준, 사명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활동을 지속하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타협을 해야 하는지 매일 생각할 것입니다."



© Anthony Wallace / AFP

20년간의 언론 자유 몰락

예고된 퇴보의 연대기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1997년 7월 1일. 많은 홍콩 주민들은 "일국양제"에 따라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누려온 언론 자유를 중국이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1996년 중반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루핑 주임은 반환 이후 언론인은 더 이상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또는 "홍콩의 독립"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이들은 언론 자유 탄압이 계획된 것이라고 믿게 됐다. 이후 행정장관이 된 동젠화는 취임 전 연설에서 중국 사회에서는 "질서"가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해 홍콩 주민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의식적이고 신중하며 진지한 노력"

다행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한동안은 거의 달라진 게 없었고 언론은 정부로부터 기존의 독립적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반환되고 한 달이 지나 식민 독립 후 홍콩의 언론 자유 세미나에서 홍콩침회대학 언론학 부교수 **팀 햄릿**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의심스럽지만 중앙 정부가 "홍콩을 자체적으로 남겨두기 위해 의식적이고 신중하며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베이징의 눈에 띄는 호의로 인해 많은 언론인들은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에 **희의**를 품게 되었다.

반환 두 달 후인 1997년 9월 홍콩의 중국 외교부 위원회는 "국내외 언론의 일반적인 취재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반복하며 홍콩 주민들의 우려를 달래려 다시 노력했다. 당시 발간된 보고서에서 언론 자유 조직 언론인보호위원회 (CPJ)는 홍콩 언론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홍콩의 언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자기 검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경고했다.

상황은 새 천년의 첫 10년간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2003년 첫 번째 국가보안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50만 홍콩인이 거리를 점거했을 때, 신문사 빈과일보가 "거리에서 만나자"라는 슬로건을 1면에 내걸고 스스로 시위의 주역임을 드러낼 정도로 언론이 큰 장애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2012년 영어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은 중국 본토의 언론인이자 중국인 민정협상회의 구성원인 왕향위가 편집국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게 됐다. 3년 후에는 당시 중국 공산당과 매우 가까웠던 중국 사업가 잭마가 설립한 알리바바그룹이 매체를 인수한 것도 언론인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행정장관

세 번째 행정장관인 령춘잉은 별칭 CY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령춘잉이 행정장관이던 2013년에서 2017년, 당국과 언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취임 첫 해에 그는 홍콩 경제일보가 자신이 조직범죄집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한 후 사과 편지를 요구했다. 빈과일보를 포함하여 독립 언론을 상대로 **많은 언어 공격**을 했다.

2014년 경찰이 민주화 우산혁명을 해산하면서 처음으로 홍콩 언론인이 대규모 경찰 표적이 되어 30여명의 언론인을 포함한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든 친베이징 마피아 조직이든 언론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계속됐다. 그때부터 령춘잉과 후임자 캐리 램은 끊임없이 독립 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지역의 시위 운동을 다룰 수 없게 하는 등 독립 언론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환 이후 25년간 홍콩의 언론 자유는 급격히 몰락했고, 홍콩 주민들이 초기에 가졌던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있다.

© Paul Lakatos / AFP

주안점

검열에 시달리는 공영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 (RTHK)

공영방송국 RTHK의 편집권 독립은 한때 홍콩 주민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디렉터 치하에서 철저한 검열을 받고 있다.

2021년 3월 1일 패트릭 리가 RTHK의 방송 디렉터로 **가면서** 최소 12개의 신규 제작물이 단기간에 방송에서 사라졌다. 해당 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200여 개의 프로그램도 삭제되었다.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행사가 포함된 정치쇼 **입법회 리뷰 (LegCo Review)**의 한 에피소드도 패트릭 리의 "최종 승인" 없이 방영되었다는 이유로 RTHK 아카이브에서 삭제되었다.

언론 경험이 없는 이 관료는 RTHK에 **정치가 파견한 위원**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전에는 공공 정책에 대해 두려움 없이 취재하기로 유명했던 RTHK에 완벽한 검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패트릭 리는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공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방송 그룹은 언론인에게 "국가 보안 및 이익을 보호하는 정부를 지지"하고 홍콩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 차별 또는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심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외국 정보나 정치 조직"과 접촉을 피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편집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RTHK는 또한 시청자들의 "애국심" 함양을 목표로 2021년 8월 중국 국영 방송사인 차이나 미디어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패트릭 리의 영입으로 총 제작자 **풍휴산**, **류와이링**, **도리스 월**, 수상 경력이 있는 기자 **이본 톱**의 고위급 간부 네 명이 사임하게 되었다. 정부 관리에 강경한 질문을 하기로 유명한 또 다른 언론인 **나벨라 코셔도**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30년 넘게 RTHK 프로그램에 기여한 영국인 베테랑 언론인이자 정치 평론가인 **스티븐 바인스**는 자신이 진행하던 영어 정치 토크쇼 펄스 (The Pulse)에서 해고되자 2021년 8월 홍콩을 떠났다. 그는 "제정신이라면, 홍콩이 언론인에게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 RTHK / YouTube Screenshot



물리적 폭력에 직면한 기자들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2019년 6월 12일, 홍콩 경찰의 일일 브리핑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브리핑에 참여하는 모든 언론인은 점점 체계화되고 수백 명의 언론인 부상자를 만들어내는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헬멧과 "전투 장비"를 쓰고 있었다. 경찰의 폭력은 홍콩기자협회(HKJA)가 **광범위하게 기록했지만** 경찰은 항상 이를 부인했다.

고무탄, 물대포, 최루 가스, 경찰봉, 수갑, 모욕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경찰의 탄압 방식이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언론 자유의 모델이었던 홍콩에서 경찰은 분명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었던 상대적인 규제를 중단했다. 대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유행하던 시위대 및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질서 유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인 최루 스프레이 분사

한때 미래적인 아열대 도시에 맞는 가볍고 편한 옷을 선호하던 홍콩 언론인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새롭고 보다 급진적인 복장은 화려한 스타일 대신에 건설 현장 의복과 유사했다. 부상이나 호흡기 손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전화와 방수마스크, 안전 조끼, 가스 마스크 등의 보호구가 일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 목록에 포함한다.

2019년 9월 인도네시아어 매체 수아라 홍콩 뉴스의 언론인 **베비 메가 인다**는 **고무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온라인 매체 매드독 데일리의 언론인이 물대포에 맞아 응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뇌손상을 입었다. 경찰관들이 언론인에게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발사체를 발사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2020년 5월 한 경찰관은 빈과일보 사진기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거의 20초 동안 목을 졸랐다고 한다.



집단 공격

경찰이 저지르는 폭력 외에도 친베이징파들은 언론 탄압을 위해 현지 마피아를 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2014년 3월 민주화 "우산혁명" 초기에 현장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훗날 명보신문 편집장이 된 언론인 **케빈 라우**는 손도끼에 중상을 입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사주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빈과일보 및 빈과일보 창립자 **지미 라이**를 포함한 민주 매체도 범죄 공격을 받았다.

2019년 7월 **그웨니스 호 콰이 램** 기자는 친베이징 마피아 조직이 시위대와 언론인, 원룡 지하철역을 지나는 행인을 대규모로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자는 당시 공격 상황을 영상으로 생중계하다,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했고 팔이 피투성이가 됐다. **빈과일보**와 **나우 뉴스 TV** 채널에서 일하는 다른 언론인 세 명도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2021년 5월 **에포크 타임스** 신문의 사라량 기자는 아파트 근처에서 남자 두 명에게 야구 방망이로 다리를 여러 차례 구타당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무장 괴한 네 명이 신문사 창고를 습격했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운전기를 훼손했다.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는 방화 공격을 당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고무탄, 물대포, 최루 가스 :
홍콩의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
에 대한 새로운 탄압방식

© Isaac Lawrence / AFP
© Philip Fong / AFP
© Nasha Chan / Initium Media



© Anthony Wallace / AFP

캐리 램 장관의 모호한 말

2017년 캐리 램은 자신의 출마를 지지한 친 베이징 정권 선거인단에 힘입어 행정장관에 당선되었다. 홍콩 정부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3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다소 허술한 면이 있는 이 고위 공직자는 끊임 없이 언론 매체를 공격하기로 유명했던 령춘잉의 뒤를 이었다. 캐리 램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들 중 하나는 많은 언론인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조치인 **정부 기자 회견**을 독립 온라인 매체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언론 자유의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캐리 램은 이내 베이징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진면목을 드러냈다.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실행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홍콩 주민들은 자유를 조금도 상실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로 주장했다. 2019년 초 캐리 램은 **언론인 및 다른 이들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다, 홍콩에서 전례 없는 시위가 벌어지며 포기해야 했다. 당시 이 시위에서 많은 언론인이 경찰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는데, 캐리 램은 항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틀에 박힌 표현

캐리 램은 2019년 8월 12일 폭력을 비판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한 RSF의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홍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규제가 없는 정보의 흐름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디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리 램은 제시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은 공적인 사건사고를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권리를 존중"하고 "홍콩의 기자는 기사 작성, TV 보도, 사진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투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말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

언론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 지 일 년도 안 된 2020년 6월 30일 캐리 램은 베이징이 "국가보안" 법을 채택한 것을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행정장관으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무시하고 언론인을 포함해 국가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기 위해 영토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다

몇 달 후 캐리 램은 빈과일보의 창립자이자 2020 RSF 언론 자유 수상자 **지미 라이**, 전 국회의원이자 전 언론인인 **클라우디아 모**,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12명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사법적으로 탄압했다. 이 법은 또한 빈과일보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구실이 되어 빈과일보는 2021년 6월 말까지 문을 닫아야 했다. 캐리 램은 정부가 **빈과일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언론 매체의 문제도 뉴스 보도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베이징의 검열을 거부하고 반대 운동의 자기표현을 허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해왔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구적인 분열을 주입받은 캐리 램의 연설은 초현실적인 함축성을 띠고 있다. "홍콩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권 전복을 선동하는 활동을 조직할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자체도 비판과 전복이 갈리는 지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비판을 일절 중단하는 것만이 언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

꾸준히 밝히다

캐리 램은 홍콩의 언론 자유 실체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2021년 라디오 텔레비전 홍콩(RTHK)의 편집권을 장악하기 위해 캐리 램은 **검열 시스템을 구축**한 방송 디렉터를 임명했다. 해당 디렉터는 이에 대한 호의로 그녀를 한 달 동안 일일 토크쇼 진행자로 초청했다.

그녀의 언론사 인증 행정 또한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매체에 한정되는 수준으로 퇴보했다. 명확한 정의도 없이, 순수하게 자의적인 이 기준은 사실상의 독립 언론, 프리랜서 언론인, 학생 언론을 배제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홍콩의 베테랑 온라인 언론사 스탠드 뉴스와 시티즌 뉴스의 언론인들은 중국 국경절 기념 행사 취재를 거부당했다.

마지막으로 캐리 램은 본토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무기화** 관행을 도입했다. 2018년 그녀



언론인 체포, 틀에 박힌 표현, 비자 무기화: 캐리 램은 언론 자유를 폐지하기 위해 완성된 캠페인을 조직했다.

© RTHK / Screenshot

는 *파이낸셜 타임스* 언론인 **빅터 말렛**을 독립 지지 활동가가 출연한 외신기자클럽 (FCCHK) 의 오찬 토론회에서 사회자를 맡았다는 이유로 추방했다. 2020년에는 중국 본토에서 추방당한 뉴욕 타임스 외신 기자 **크리스 버클리**와 온라인 매체 *홍콩 프리 프레스 (HKFP)* 에 합류하려던 **애런 맥 니콜라스**의 비자 신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언론인 **수린웡**의 비자 갱신도 거부했다.

주안점

멈춰진 시간 속의 마카오 독립 언론

중국의 다른 특별행정구 마카오는 반항적인 홍콩과 달리 “전형적인” 특별행정구로 묘사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이곳의 언론 자유도 쇠퇴하고 있다.

1996년 문을 열고 마카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려 해왔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마카오 컨실러스 (Macau Concealers)*는 2021년 10월 20일 독립 언론에 대한 검열과 압력의 증가를 포함한 “전례 없는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에 홍콩이 반환된 지 2년 후인 1999년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됐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이후 선택의 여지 없이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인구 70만명에 도박 산업에 기반한 경제를 가진 마카오는 본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홍콩 소재 언론보다 작고 취약한 마카오의 언론은 덜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만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점점 더 베이징 정권의 이야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2009년 마카오가 국가에 대한 범죄를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하는 국가보안법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적은 없었다.

마카오 언론은 공적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영어 및 포르투갈어 언론은 이를 광범위하게 보도해 압력과 위협을 더 받게 됐다.

2019년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마카오 방문을 앞두고 최소 5개 홍콩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이 “공공의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포르투갈 공영 방송 (RTP)의 기자들은 장시간 동안 경찰 심문을 받았고 촬영 자료를 압수당했다. 게다가 많은 현지 언론인이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고, 시진핑 주석 방문 동안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이들도 있다고 한다.

2021년 4월 공영 방송 마카오광파전시교분유한공사 집행 위원회는 “중국과 마카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견을 표현하지 말고”, “애국심을 고취”하라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언론인 14명이 해고 위협을 받고 사임했다.



© Macau Photo Agency



3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범죄

- 중국 공산당 (CCP) 은 전례 없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사회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열과 선전, 대규모 감시를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 중국은 서방의 " 적대 세력 " 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불량 저널리즘 (rogue journalism) 개념을 국외로 전파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자국의 이익이 담긴 주장을 더 은밀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위협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을 통제하려는 집착

코로나 19: 순식간에 진압된 자유의 폭발

2020년 2월 초 우한 중앙 병원 안과 의사이자 코로나 19 출현에 대한 **최초의 내부고발자 리원량**이 사망한 후 중국 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 넘쳐났다. 질병으로 사망하기 며칠 전, 경찰은 그에게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웅이 되었다.

그의 사망 며칠 후 중국 소셜 네트워크 시나 웨이보에선 #WomenYaoYanlunZiyou("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200만 회 이상 사용되며 사망한 의사를 추모하고 당국의 위기 관리 실책을 꼬집었다. 최근 몇 년 간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된 중국의 상황을 볼 때, 놀랄만한 규모의 운동이다. 이러한 메시지 대부분은 검열 압박으로 인해 삭제되었다.

정권의 투명성 부족 및 공식 언론에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중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언론매체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고 있는 팬데믹을 보도했다. 그중 북동부 헤이룽장성 출신 변호사 **천추스**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우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혼란상을 보도하고 피해자 가족을 인터뷰했다.



전염병의 최초 내부고발자 리원량 의사가 사망한 후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우한을 취재하러 갔다.

© Mark Ralston / AFP

우한의 평범한 섬유 사업가인 **팡빈**도 동료 시민들에게 코로나 19의 현실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고 2020년 1월 25일 과포화된 병원 상황을 담은 첫 영상 보도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러한 두 명의 비전문 언론인은 2020년 2월 초 **실종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추스는 2021년 9월 30일 그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언급 없이 소셜 미디어에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팡빈의 행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전염병 최소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2020년 1월 20일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여론 관리 강화"를 촉구한 것과 대조된다. 위기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한 당국의 부족한 준비와 책략에 차이신과 차이징 같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매체의 문외파가 쇄도하자, 당은 약 300명의 선전가를 "언론인"으로 가장해 우한으로 보냈고, "긍정적" 각도에서 전염병과의 싸움을 보도하려 했다.

중국 당국은 또한 인터넷 상의 정보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빠르게 표현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뉴욕 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 공동 **조사** 결과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CAC)의 지령 3,200개와 메모 1,800개를 기반으로 온라인 여론 형성 **전략**을 공개했다. 베이징 당국은 "치료불가"와 같은 용어의 사용 제한, 위기 관련 키워드와 알림 차단, 온라인 해설자 동원 등을 통해 뉴스 사이트에서 질병의 영향을 최대한 축소하려 했다.

비판적인 목소리 억제

리원량 의사 사망 직후 CAC는 지역 지부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보냈다. "우리는 이번 사건(리원량의 사망)으로 촉발된 나비 효과, 깨진 유리창 이론, 눈덩이 효과, 그리고 온라인 여론 관리와 통제 작업에 생겨난 전례 없는 도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이버공간청은 온라인 여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당과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체제를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검열 조치와 더불어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졌다. 비정부기구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중국의 코로나 19 발생과 관련된 온라인 발언으로 **처벌받은 중국 네티즌** 사례 897건을 기록으로 남겼다. **장 잔**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언론인과 온라인 해설자는 위기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2020년 구금되었다.



© Chen Qiushi / YouTube Screenshot

주안점



© Zhang Zhan / YouTube Screenshot

우한 보도로 인한 징역 4년

2021 RSF 언론자유상 수상 언론인 장 잔은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부터 우한시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 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분 단식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21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 장 잔(38세)은 2020년 12월 28일 상하이 법원에서 단 3시간의 재판 끝에 "불화 도발 및 분란 조장"을 이유로 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020년 2월 장 잔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우한시로 간 용감한 언론인 중 한 명이었다. 장 잔은 2020년 5월 14일 우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기 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챗, 트위터에 100개 이상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다음날 당국은 장 잔이 수감되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서 검사는 장 잔이 "다량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기소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 내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녀는 항소를 포기했다. 장 잔의 변호인 중 한 명에 따르면 구치소의 요원들이 항소의 예상 결과는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을 이해시켰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의가 부정되는 것에 항의하고자 장 잔은 부분 단식 투쟁을 벌였고, 이후 튜브를 통해 강제로 음식을 주입당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2021년 10월 말 장 잔은 1.77m의 키에 몸무게는 겨우 40kg이었고 도움 없이는 움직이거나 머리를 들지 못했다. 2021년 8월 그녀는 11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중국의 검열과 감시가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 Aly Song / Reuters

중국의 인터넷 감시

2021년 11월 2일 국제 테니스 챔피언 평샤이는 중국 소셜 네트워크 시나 웨이보를 통해 전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장가오리 전 부총리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30분도 안 돼서 게시물 및 모든 관련 공개 댓글이 지워졌다. 선수의 계정은 검색 엔진에서 삭제되었다. 검열관들은 상위 권력층과 관련된 위험한 스캔들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샤이는 이후 가택 연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메시지 앱 위챗은 막대한 부채 상환의 어려움으로 중국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한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Evergrande)의 의심스러운 금융 관행을 자세히 다룬 부정 폭로 매거진 차이신의 기사를 검열했다. 2021년 초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금지된 주제에 관한 토론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암호화 메시지 앱 시그널과 오디오 앱 클럽하우스도 중국 인터넷에서 금지되었다.

금지된 키워드

중국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에 의존하지 않고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왓츠앱 같은 외국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인터넷을 세계와 격리하기 위해 정권이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 기술 시스템 "만리방화벽"은 많은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된 키워드가 포함된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검열에 맞서 싸우는 비정부기구 그레이트 파이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1,000개의 웹사이트 중 160개](#)를 중국에서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던 중국 인터넷에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인터넷 사용자는 정치 계급에 대한 불만을 포함해 의견을 상당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중국 정권은 이것이 지배에 미치는 위험을 인지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2014년 정권은 인터넷 감시 기구를 만들었고 2018년에 시진핑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 네트워크 안전정보화 위원회로 발전시켰다. 집행 기관인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은 10억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화" 캠페인

미국 비정부기구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19년에 자그마치 11,000개의 중국 웹사이트, 737,000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그룹 채팅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특정 공식 계정과 정부 허가 뉴스 웹사이트만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 관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2021년 2월에는 블로거에게도 "민감하다"고 간주되는 사회 문제와 거리를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홍콩 대학 저널리즘 및 미디어 연구 센터가 주도하는 "WeChatSCOPE" 프로젝트에 따르면, 검열은 주제별 "정화 캠페인"을 만들어 시기별로 진행된다. 2021년 6월 검색 엔진 바이두와 소셜 네트워크 시나 웨이보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를 발표한 후 3대 주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검색 결과를 차단했다. 다음 달, 위챗은 인터넷 정보 규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역의 학생이 관리하는 성소수자 계정 12개를 삭제했다.

최소 200만 명의 검열관

중국 인터넷 검열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3년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2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로도 그 수는 분명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다. 2021년 8월 웨이보 플랫폼의 검열관들은 매달 최소 500건의 검열 보고서를 할당받으며, 이중 90%가 입증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려면 외국 기업도 검열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20년 8월 중국 뉴스 웹사이트 148개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3,487개가 애플 중국 앱스토어에서 **제외**됐다. 2021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 그룹의 자회사인 링크드인은 강화된 검열로 인해 중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 후 미국 포털 야후도 많은 서비스가 정권의 디지털 검열로 이미 차단된 상황이라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만, 중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이 지켜보고 있다"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무서운 수준에 이르렀다. 2014년부터 규제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정보 서비스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암호화되지 않은 대화의 내용과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에는 당국이 곧바로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019년 BBC의 중국 외신기자 **스티븐 맥도넬**은 천안문 사태 30주년 기념 홍콩 철야 행사 사진을 위챗에 올렸다가 경고 없이 계정 비활성화를 당했다. 기자는 계정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얼굴을 스캔하고 목소리를 녹음해야 했다.

2021년 9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사기 방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의 신용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앱은 사실상 경제 뉴스 매체 블룸버그 같은 "매우 위험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롤 부대

공산당의 선전 활동도 소셜 미디어를 축수를 뺐졌다. 정권은 일반 시민을 가장해 메시지당 0.5 위안 (유로 7 센트)을 받고 정권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조장하는 **선전 대대 "50 센트군"**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미국정치학회보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권의 고용인들은 매년 4억 4800만 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중국 내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친정권 자원 봉사자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라는 믿음 때문에 "소분홍"이라는 별명이 붙은 네티즌 부대는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에 맞서 필사적으로 정권을 옹호한다. 2021년 10월 말레이시아 가수 **네임위**와 호주 가수 **킴벌리 첸**이 트롤부대의 고조된 예민함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부른 노래 "**유리심장 (Fragile)**"은 중국에서 금지되었다. 이 노래는 이후 대만과 홍콩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동영상 1위에 올랐다.

중국 애국주의자 트롤들을 부드럽게 조롱하는 노래 유리 심장 (Fragile) 이 중국에서 금지된 후 대만과 홍콩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동영상 1위에 올랐다.



© Namewee / YouTube Screenshot

주안점



© Martin Bureau / AFP

억압을 위해 만들어진 첨단 기술

베이징은 최근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의견 흐름을 감시하며 당의 이익을 피하는 대화가 없는 디스토피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2021년 4월 심양이공대학교와 중국과학원의 중국인 연구원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언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AI 텍스트 검열 시스템 개발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구실로 천망의 영상 감시 프로그램, 중국 영토 전체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만들어진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매의 눈과 같은 감시 기술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다.

정권의 보호주의적 정책은 국제 경쟁을 차단하면서 검색 엔진 바이두,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인터넷 통신 대기업 텐센트, 화웨이, ZTE 등 국가 IT 챔피언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정권은 이 기업들에게 검열, 선전, 감시 프로그램에서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

정권은 폭력적인 탄압 현장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하이키비전**, **센스타임**, **클라우드워크**, **아이플라이테크** 같은 중국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안면 인식 개발 시험장으로 사용했다. 주민들은 또한 스파이 앱도 설치해야 했는데, 이 앱은 무슬림 서적을 디지털 사본을 보유하는 것, 채팅 로그에 코란 구절을 작성하거나 또는 수신하는 것, 이슬람 사원에 기부하는 것 등의 "일탈" 행동을 스캔한다.

중국 정권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머지 않아 미래 범죄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과 주민들의 행동에 따라 그 권리를 조정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자신의 언론 인 활동과 관련해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탐사 보도 기자 류 후가 2017년부터 지역 사회 신용 시스템 블랙리스트에 실험적으로 올라갔다. 과학 공상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텔레비전 시리즈 블랙 미러의 디스토피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사회적 프로젝트는 공포로 다가온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감시 기술이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8월 Top10VPN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관리하는 68개 정부 중 17개 정부가 화웨이와 협력해 특정 뉴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리투아니아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중국에서 대중에게 금지된 1,300여 개 키워드를 검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중국 브랜드 화웨이, 샤오미, 원플러스의 스마트폰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소셜 네트워크에 떠도는 이 밈은 중국 하이테크 제품이 개인 정보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Facebook

수많은 저항 방법

2021년 2월 8일 무렵, 오디오 채팅방 앱 클럽하우스에서 "후 시진 팬클럽 (The Hu Xijin Fan Club)"이라는 채팅 그룹이 화제가 됐다. 이 채팅 그룹은 극우 국가주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 (*Global Times*)의 편집장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는 2021년 1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경제 부양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눠준다면, 돈을 전혀 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모든 곳에 벽이 있다면 그 어디에도 벽이 없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과 바이든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한 반이민 장벽을 예들려 언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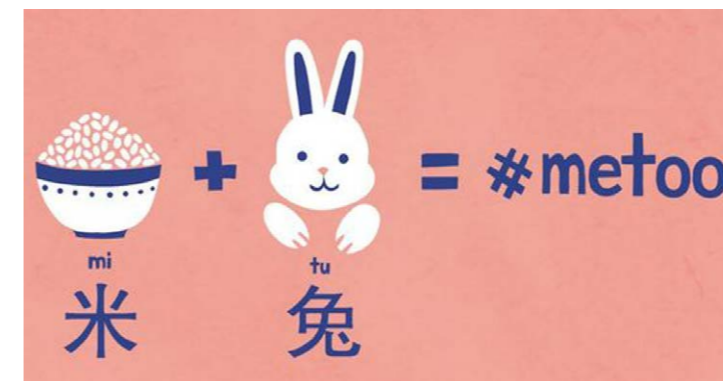
공산당의 미화된 미사여구를 끝없이 마주하게 된 중국 국민들은 이에 속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보를 얻고 검열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NGO 단체인 그레이트 파이어 (GreatFire)의 설립자는 "중국인들은 아무리 널리 퍼지고 모든 미디어 채널에서 언급하더라도, 분명히 당국이 하는 말에 불신을 품고 있다"며 "당국이 사실이라고 발표할 때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물게"와 "수도 계량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및 관련 키워드가 검열로 차단되자, 인터넷 사용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었다. 일반적인 방법은 금지된 단어를 동음이의어, 즉 발음은 같지만 다른 문자로 쓰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다. 2018년 1월, "쌀토끼, rice bunny(중국어 *mǐ-tù*)"라는 단어가 소셜 네트워크 웨이보에 등장했다. 당국이 일시적으로 검열한 해시태그 #MeToo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선보인 조화로운 사회 건설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조화, harmonised"라는 단어와 동음이의어인 "민물게, river crab"(중국어 *héxiè*)는 인터넷에서 표현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를 의미하는 "ZF"(중국어 *zhèngfǔ*)와 같이 단어의 라틴어 표기 [머리글자](#)를 사용하거나, 중국 공안에 대해 "수도 계량기 검침"과 같은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건물 내를 돌아다니기 위해 수도 관리 직원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안의 습관에 착안해 "누군가 집에 방문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말이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동안 인터넷 사용자들은 검열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사망한 내부 고발자이자 의사 리 원량을 기리고 당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독창성을 발휘했다. 일부는 "허위 소문 유포"를 중단하고 상황을 이해하라는 공안의 요청에 대한 리 박사의 답변을 언급하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쓴 셀카를 올렸다. 의사들에게 가해진 검열을 비난하고 신문 가판대에서 사라진 인민일보 자매지인 런 우 (*Ren Wu*)의 한 기사는 스크린샷과 영문, 모스 부호, 점자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사용한 번역본으로 복구되었다.



중국 국민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해시태그 #MeToo와 똑같이 발음되는 "쌀-토끼, rice-rabbit" 같은 동음이의어의 중국어를 사용한다.

© Marcella Cheng / The Conversation

오픈 소스와 블록체인

전 세계의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코드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오픈 소스 웹 사이트인 깃허브(Github) 플랫폼 역시 검열 콘텐츠의 피난처가 되었다. 2019년 중국 IT 기업 직원들은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가혹한 업무 조건을 고발하는 "996.IC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검열받지 않은 수천 건의 증언을 수집했다. 신기술 분야의 발전에 필수적인 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하기는 어렵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데이터가 수많은 컴퓨터에서 공유되어 삭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왔다. 2018년 4월, 베이징 대학이 성폭행 은폐를 시도한 방법을 낱알이 밝힌 활동가 **쉬에 인(Xue Yin)**의 편지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에 익명으로 게시되었다. 같은 해 7월, 이 기술은 영유아에게 접종한 백신이 효과가 없음을 폭로하는 조사 보고를 사수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고양이 - 쥐 게임

당국은 경제적인 경쟁력을 위해 지금까지 가상 사설망(VPN)를 사용하는 중국 기업을 용인하기도 했다. 이를 사용하면 "만리장성 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여 중국의 검열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2017년부터 인터넷 "정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러한 도구 사용을 점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GreenVPN과 Haibei VPN과 같은 인기 제공업체들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폐업해야 했다. Apple은 중국 앱 스토어에서 모든 VPN 앱을 **삭제**했다.

중국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외국의 VPN 서비스 업체는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된다. 중국 VPN의 경우,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경로를 통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설명과 함께 VPN을 판매 또는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그 중에는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50만 위안(약 8만 달러)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2019년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익명을 금지하는 규정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마침내 검열 조치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 줄 깃허브의 대안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양이 - 쥐 게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NGO 국제 앰네스티가 2020년 3월에 발표한 기사내용처럼 "그러한 지혜와 상상력을 정보를 얻기 위한 투쟁보다 더 생산적인 일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 중국의 검열은 머지않아 머신러닝을 활용할 것이다 "

NGO 그레이트 파이어는 중국의 검열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독일 공영 방송국인 *Deutsche Welle* 로부터 2013년 " 최고의 온라인 액티비즘 " 상을 수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레이트 파이어의 설립자들이 RSF의 질문에 답했다.

그레이트 파이어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조직은 어떻게 발전했나?

"2011년 중국의 온라인 검열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레이트 파이어를 시작했다. 초기 프로젝트인 Analyzer(후에 Blocky로 이름 변경)는 중국에서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의 목록을 제공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들이 더욱 더 강화된 검열 대상이 되었기에 프리웨이보(FreeWeibo)라는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 웨이보의 미검열 버전을 선보이기로 했다. 메시지 앱인 위챗(WeChat)이 인기 면에서 웨이보를 추월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위챗으로 프로젝트를 반복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 *AppleCensorship.com*을 개발했다. 이 웹사이트는 Apple이 중국 당국의 압력을 받아 전 세계 앱스토어를 어떻게 검열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현재 우리는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중국 검열 기구가 이 만큼 발전했다는 뜻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장애물을 마주했나?

"우리는 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들은 우리를 '반중국'이라고 몰아세웠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우리를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지만, 우리는 다행히 복구에 성공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중국 대중에게 우리가 만든 도구를 알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차단되지 않은 외국의 유명 웹사이트를 통하기도 하고 입소문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에 놓인 당면 과제들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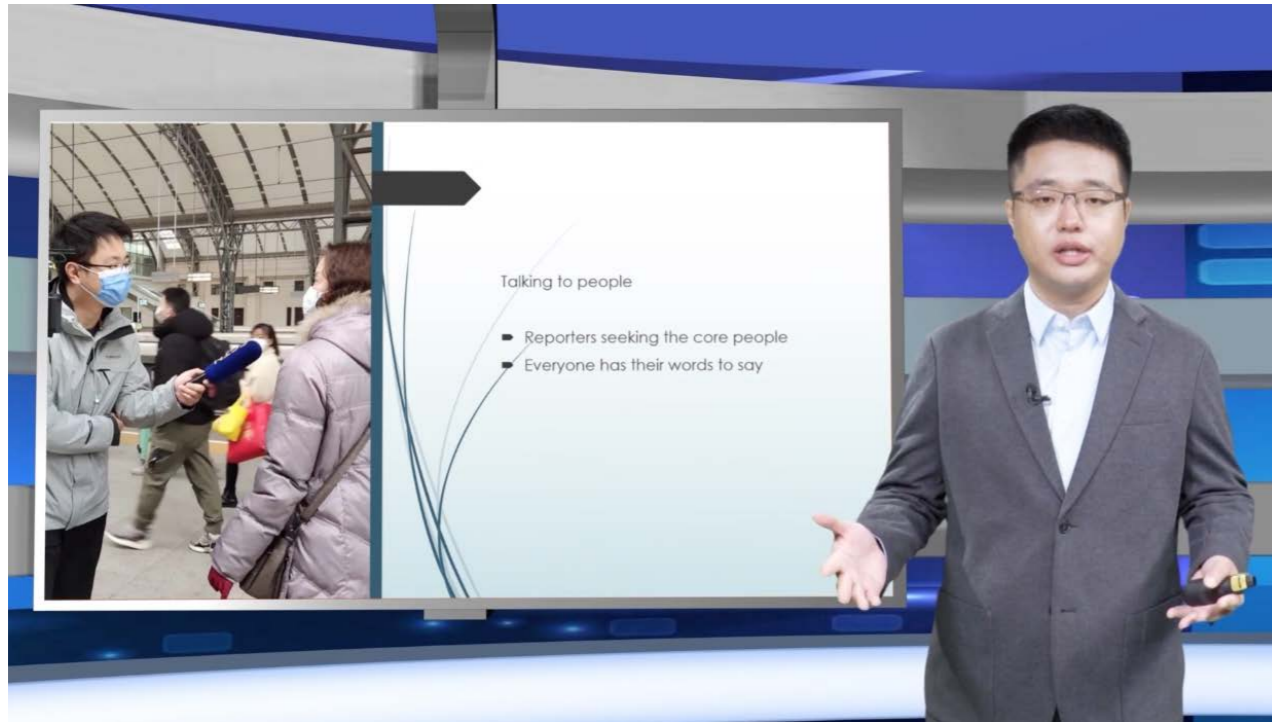
"중국의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이 기존의 검열과 더불어 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머지않아 머신러닝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Apple과 같은 기업은 나쁜 선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중국에서 정보를 검열할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을 대신하여 전 세계의 정보를 검열한다. 만약 다른 기업들이 애플의 선례를 따른다면 국민들은 중국 당국이 검열하려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의 고객,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중국을 포함한 국가의 검열 요청을 거부하도록 압박하게끔 설득하고 있다."



GREATFIRE.ORG

© GreatFire.org

저널리즘을 금하는 사회의 비전



CGTN의 한 기자가 "우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취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외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인권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말하는 주민을 인터뷰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 Capture d'écran BRNA / CCTV

성공적인 베이징 언론 모델 수출

2019년 4월, 중국은 인민일보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회원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 네트워크인 일대일로 뉴스 네트워크(Belt and Road News Network, BRNN)를 설립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 중국에서 매우 야심차게 시작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서 이어진 "정보 교환"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동, 유럽, 동부 아프리카의 100개 이상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

BRNN은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는 최초가 아니다. 2016년 중국 국제 텔레비전 공사(CITVC, China International Television Corporation)는 133개 조직으로 구성된 영화 및 텔레비전 미디어 연합인 일대일로 미디어 커뮤니티(Belt and Road Media Community)를 창설했다. CCTV 비디오 뉴스 에이전시(CCTV+)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뉴스 연합(BRNA)은 2017년 출범했으며, 42개 국가 및 지역의 74개 미디어 기관(대부분 TV 방송 뉴스 관련)이 회원에 포함되어 있다.

"화두"의 개요

중국은 이러한 조직을 통해 전 세계 언론매체에 지지를 호소하고 그들이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일대일로 미디어 커뮤니티 내의 공동 방송 및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The Silk Road Reborn, A Bite of China, China's Mega Projects" 등의 TV 프로그램이 20개국 이상의 80개 기관에 의해 3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었다.

신화 통신의 자회사인 중국 경제 정보 서비스(China Economic Information Service)는 2017년 12월 유럽의 20여개 싱크탱크 및 언론 매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전문 금융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Deutsche Presse-Agentur*(독일), *Class Editori*(이탈리아), *Le Soir*(벨기에), *Metro*(영국), *the Financial World*(스페인), *Open Communication*(스페인), *Tanjug News Agency*(세르비아) *Athens News Agency*(그리스)가 여기에 함께했다.

두 개의 미디어 네트워크, 즉 BRNA와 BRNN은 당이 자신들의 선전을 전달하고 관영 미디어가 자신들이 일하는 방식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 세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BRNA 성명에서 참가자들은 중국의 기술 산업에 "놀랐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국의 "효율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특별 교육 과정인 동방 장학금 프로그램(Scholarship Programme)도 저널리스트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화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의 기자들에게 중국의 선전과 "의견을 맞추도록" 촉구한다. 중국에서의 26일 과정은 관영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중국 대학 두 곳과 중국 동방 항공 그룹이 후원한다.

매력 공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베이징은 전 세계의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또는 가능하다면 이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국 기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국 기자들의 방문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베이징에 도움이 된다. 기자들이 그들의 방문을 묘사하는 방식은 중국 관영 매체에 신뢰를 부여하고 일반 국민에게 전 세계가 공산당의 정책에 찬성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프레스 센터에서 마련하고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협회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단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만들어내겠다는 노골적인 목적으로 인도 등지 국가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기자들을 10개월 동안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초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많은 정부가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기자들은 그들의 편집장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사관이 당의 승인을 받아 선발하며 그 대가가 요구된다. 조건은 명확하다. 이 기자들은 "중국 이야기를 좋게 해줄 것"을 약속해야 하며 심지어 중국의 독재 정권을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의 중재자로서 묘사하기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들은 체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2019년 1월 10일,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를 방문하기 시작한 터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모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인 국가)의 기자 대표단에는 백만 명의 위구르 이슬람 신자들의 신장의 재교육 수용소 감금 여부를 자유롭게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 당국은 대표단을 "테러와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전시예 데려갔다.

"메이드 인 차이나" 미디어 행사

교육 세션 외에도 중국은 자체 국제 행사를 마련하여 뉴스 매체에 대한 독재주의적인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연례 BRICS 미디어 서밋은 중국이 서구 미디어 헤게모니를 비난하고 "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다.

© Greg Baker / AFP

노력했다. 2009년에는 세계 미디어 서밋(World Media Summit)을 만들었다. 그 이름으로는 짐작할 수 없지만, 이 행사는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 통신이 전적으로 계획 및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첫 번째 서밋은 News Corp(미국), the Associated Press(미국), Thomson Reuters(영국), ITAR-TASS(러시아), Kyodo News(일본), BBC(영국), Turner(미국), Google News Corp(미국)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적인 파트너가 함께 했다.

"21 세기의 도전 과제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201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두 번째 서밋에는 102개국 213개 국제 언론 기관이 참가했다. 카타르 TV 방송국인 알자지라는 2016년 3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120개 조직과 100개 언론 매체가 참여한 가운데 "뉴스와 뉴스 기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서밋을 주최했다. 독재적이고 언론의 자유를 거부하는 나라에서 열린 이 서밋들은 중국에 "긍정적인 보도"와 "신세계 미디어 질서"의 개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이를 통해 신화통신의 간부들은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선보인다는 평판과 함께 국제 언론과 동등한 조건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신화통신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로 알려진 5개 신흥 경제국의 뉴스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BRICS 미디어 서밋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다른 4개국의 언론 규제와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언론 패권을 비난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가 됐다.

주안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 관영 매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도달하는 미디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 왔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다. 관영 CGTN은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China Radio International)은 44개 언어로 방송한다.

케냐 나이로비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CGTN 아프리카는 세련된 연출, 전문적인 스타일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어휘 선택으로 CNN 인터내셔널에 버금가는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특히 CGTN 아프리카는 중국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아프리카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2월, CGTN은 현지 직원 90명을 채용하여 런던에 유사한 제작 사무실을 개설했다. 이 지역은 2012년 동시에 개설된 워싱턴 D.C.와 나이로비의 지국이 미주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유럽용으로 특별히 기획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것이다. CGTN 유럽은 관영 TV(CCTV와 CGTN)와 국내 및 국제 라디오 방송사(차이나 내셔널 라디오와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를 아우르는 단일 상부 단체이자 비공식적으로는 "보이스 오브 차이나"(Voice of China)로 알려진 차이나 미디어 그룹(China Media Group)을 보강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국제 언론 입지 규모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는 현재 24시간 TV 뉴스 채널 5개(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1개의 영어 다큐멘터리 채널을 포함하여 6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CGTN은 현재 런던, 워싱턴 D.C. 및 나이로비의 제작 센터를 포함하여 70개 지역에 약 10,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60개국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다.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CRI) 역시 해외 70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기록적인 숫자인 44개 언어로 방송되며 전 세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인쇄 매체도 이제 빅리그에서 뛰고 있다.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특별호를 발행하는 영문 *차이나 데일리*는 매일 90만 부(뉴욕 타임스 인쇄 부수의 거의 절반)를 발행하며 총 4,50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이래로 *환구시보*는 영문판을 단 10만 부만 발행하고 있지만 10개 언어로 된 웹사이트는 하루에 약 1,5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한다. 한때 너무 돈을 안 쓴다고 조롱받았던 관영 신화 통신마저도 해외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 CGTN Africa / YouTube Screenshot





해외에서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 친정부 성향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이 세르비아에서 "독재자 시진핑"에게 감사를 표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 Andrej Isakovic / AFP

"중국 이야기" 강요

신장 자치구 탄압에 대한 비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베이징 정권은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2021년 6월, 뉴욕 타임스 (*New York Times*)와 프로퍼블리카 (*ProPublica*)의 공동 [조사](#)에서는 위구르인들이 신장 자치구에서 자신들의 삶을 의심스러운 정도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3,000개 이상의 YouTube 동영상에 폭로됐다. 당이 선전 캠페인 연출을 조작한 것인데, 이러한 동영상은 특히 제작과 대본 측면에서 유사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시진핑 주석이 장려한 [네러티브](#)에 따라 전 세계가 "중국 이야기를 좋게 하도록" 강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관영 통신사 신화의 전 대표 리 총진 (Li Congjun)은 2013년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언론은 여전히 서구 언론 매체가 지배하고 있다"며 자국을 위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신세계 미디어 질서"의 수립을 주장했다.

트로이 목마 전략

국제적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이징은 전략적으로 외국 매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야심 찬 프로그램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인수 정책은 외국 언론 매체로의 자금 이체를 감독하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통일전선공작부 (United Front Work Department)에서 관리한다. 2018년 4월 블룸버그 뉴스 (*Bloomberg New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유럽 미디어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약 3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유럽 전체 투자의 약 1%에 해당한다.

중국 정권은 주요 국제 신문에 사설 증보판을 발행하는 데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미국), *Daily Telegraph*(영국), *Le Figaro*(프랑스), *Handelsblatt*(독일), *Rossiyskaya Gazeta*(러시아), *Mainichi Shimbun*(일본)의 독자들은 언뜻 봐서는 유해하게 보이지 않는 차이나 워치 (China Watch)의 무료 증보판에 익숙해졌다. 차이나 워치는 중국의 싱크탱크로 이들 해외 신문에 정기적으로 증보판을 게재한다. 차이나 데일리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증보판은 꽤 흥미로운 읽을거리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회 엘리트층에게 선전할 수 있게 해주는 트로이 목마다. 중국이 유력 일간지에 이를 게재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약 250,000달러에 달한다. 미디어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적 이득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화교 공동체 관리

베이징의 영향력은 중국 밖의 중문 매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절반 가량이 아시아에 거주하는 5천만 명의 해외 화교는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1989년 6월 4일, 재외 동포 매체의 분노를 촉발한 천안문 학살 이후,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이미지 관리 전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매체들을 하나씩 사들이는 동시에 자체적인 새로운 매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화교 커뮤니티 (약 900만 명)가 있는 태국에서 중문 매체는 한때 맹렬한 반공산주의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조가 바뀌었다. 1950년에 설립된 Sing Sian Yer Pao는 현재 태국의 대표적인 중문 일간지로 전통적인 한자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로 변경하고 중국의 Nanfang Mediagroup과 제휴를 시작했다.

2021년 9월 23일 발행된 영국 신문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어를 구사하는 이민 1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중국어 메시지 앱 위챗은 중국어로 된 주요 뉴스 보급 채널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2018년 4월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의 연구에서는 미국판 위챗에서 극우의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의 많은 사례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앱은 또한 국내 버전만큼은 아니지만 해외 사용자들의 대화 및 당이 민감하게 여기는 콘텐츠를 추적한다.

중국 스타일의 "샤프 파워"

민주주의 국가 내 정보의 자유에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의 재외 공관이다. 중국 대사 중 일부는 해당 신문 기사가 "14억 중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 그리고 보통 그렇게 주장한다 - 언론인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반론권을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 중 압도적 다수가 검열로 인해 외국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중국인의 감정을 들먹이는 것은 꽤나 과장된 것이다.

2021년 10월 25일 상습적인 언론 비방으로 악명 높은 파리 주재 대사 루 셰이 (Lu Shaye)는 중국 대사관 웹사이트 게시물을 통해 일간지 르 피가로 (*Le Figaro*)의 아시아 특파원 **Sébastien Falletti**를 공격했다. 이 기사는 10월 19일 발행된 기사를 통해 "거짓말과 유언비어로 부풀려졌다", "현실의 목을 비틀었다" 그리고 대만 정부에 대해 "안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사는 또한 베이징에 있는 르 몽드 (*Le Monde*)의 특파원 **Frédéric Lemaître**의 글이 자주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언론 매체 전반에 대해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실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랑 외교

대사관들은 또한 중국의 정보 통제를 위협하는 행사를 취소하도록 개최지에 압력을 가한다. 독일에서는 2021년 10월 27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 공자 학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 명의 독일 언론인 **Stefan Aust**와 **Adrian Geiges**가 쓴 시진핑에 관한 책 [강연](#)이 뒤셀도르프 주재 중국 총영사의 직접 개입 이후 취소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계 호주인 풍자만화가 **Badiucao**의 전시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중국 외교관들은 중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소셜 미디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P 통신과 미국 싱크탱크인 Atlantic Council의 Digital Forensic Research Lab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중국 외교 계정은 Twitter에서 3배 이상, Facebook에서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비판자들에게 대한 공격적이거나 심지어 모욕적인 반응의 증가와 함께 나타났다. 이는 주인공이 외국의 "악당"을 물리치는 애국적인 중국 액션 영화에 빗대어 "전랑 외교 (wolf-warrior diplomacy)"라 불린다.

허위 정보 캠페인

외국 소셜 미디어는 중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대만과 그보다는 멀하지만 중국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주요 타깃이 되기는 했지만,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과 싸우면서 중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가짜 뉴스 중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는 미군이 메릴랜드 주 포트 디트릭에 있는 실험실에서 개발한 생물무기이며 2019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밀리터리 월드 게임즈(Military World Games) 기간에 유입되었다고 말한다.

2020년 3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젠(Zhao Lijian)은 일련의 트윗을 게시하여 코로나 19가 미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AP 통신과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의 같은 연구에 따르면, 자오의 게시물은 이후 6주 동안 최소 54개 언어로 거의 10만 회가량 인용되었다고 한다. 가짜 계정과 탈취 계정을 자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사이버 보안 회사 Graphika가 "스팸우플라주"(spamouflage)라고 부르는 수법은 중국이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이란,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무비판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부추겼다.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 연합 등 다른 국가와 지역 기관은 명백히 중국을 허위 정보의 출처로 지목했다. 2020년 6월 트위터는 베이징의 국가 영향력 캠페인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약 17만 개의 중국 계정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롤과 인플루언서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발적 민족주의 트롤인 "소분홍(Little Pinks)" 역시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한다. 그들의 첫 번째 사이버 괴롭힘 캠페인 중 하나는 차이 잉 웬(Tsai Ing-wen)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2016년 1월에 진행되었다. 많은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새 대통령 당선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격적인 댓글과 밈을 게시했다.

중국 정권은 선전을 확대하고자 인플루언서들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황구시보*에 따르면, Faihaa Wang이라는 아랍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차이나 미디어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이집트에서 당의 화두와 가짜 뉴스를 이용해 신장 자치구에서의 중앙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2020년, 다른 해외 브이로거들(영국에 거주하는 Barrie Jones, Jason Lightfoot, Lee, Oli Barrett 포함)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신장 자치구에서의 중국 정부 정책과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훌륭한 대처"를 옹호하기 위한 동영상 게시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중국 애호가"라고 설명하는 이 브이로거들은 서구의 언론 매체가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한다.



천중 영국 블로거인 제이슨 라이트풋(Jason Lightfoot)은 신장 자치구 탄압에 대한 서구 언론의 보도를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 CGTN / YouTube Screenshot

주안점

중국에서 금지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침투한 틱톡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금지된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TikTok)이 베이징 정권의 검열 및 감시 활동 수단으로 의심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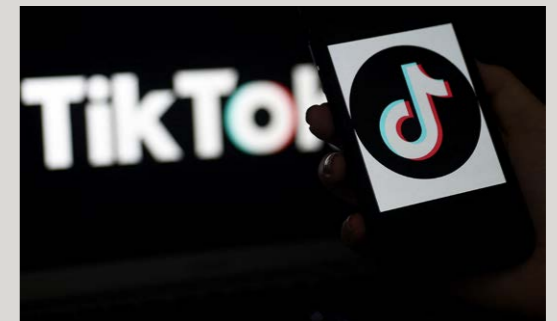
틱톡은 중국 기업인 ByteDance가 2017년 짧은 동영상 공유에 특화해 선보인 소셜 네트워크다. 틱톡은 2021년 9월까지 20억 다운로드와 월간 이용자 10억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18~25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앱은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중국 국민은 국내에만 한정된 틱톡의 쌍둥이 플랫폼인 더우인(Douyin)으로 만족해야 한다.

2021년 6월 25일 CNBC 텔레비전 채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과 싱가포르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모회사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비밀 조항을 통해 확인되었다. ByteDance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는 있다. 하지만 중국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인 터라, 중국 당국이 이를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2019년 9월, 이 앱은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토론을 검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영국 신문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천안문 학살, 티베트 독립, 파룬궁 운동을 포함하여 베이징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콘텐츠를 검열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기사에 대응하여 그러한 지침은 폐기되었으며 좀 더 현지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틱톡은 아프간계 미국인 십대 Feroza Aziz가 중국의 위구르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고 팔로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게시하자 해당 계정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 플랫폼은 처음에는 테러 관련 콘텐츠에 대한 규정 위반을 들먹였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Feroza Aziz에게 사과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혐의로 미국 내 인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플랫폼을 금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했지만, 틱톡 등 해외 앱에서 발생하는 보안상의 위협을 평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Olivier Douliery / AFP

선전과의 전쟁을 조직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정보 매체의 독립성과 다원주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즉 매체는 정부의 간섭 없이 방송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영역을 외국 매체에도 개방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을 포함한 독재 정부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와 정보를 통제하고 선전을 내보내는 폐쇄된 독재 국가 간의 불균형은 언론 그리고 더 넓게는 자유, 독립성, 다원주의가 요구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재 정권이 해외에 선전을 내보내면서 국내로의 유입은 차단하며 언론의 대의에 이바지하지 않은 채 독재 정권에 민주주의 국가보다 경쟁 우위를 부여하게 만든다.

불법 관행의 제재

민주주의 국가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규칙 위반을 제재하려 한다. 2020년 11월 18일, 대만의 독립 규제 기관인 국가 통신 위원회(NCC)는 언론 윤리 준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뉴스 채널 CTi TV의 방송 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친중국 성향의 Want Want China Times Media Group이 소유한 이 채널은 2014년에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그 관행에 큰 변화는 없었다.

2021년 2월,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통신청(Ofcom)은 **비슷한 사유로** CGTN 채널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 그룹은 프랑스 위성 유틸셋(Eutelsat)을 통해 유럽에서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동등한 대우의 보장

이 사례가 있는 다음, RSF는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 본국과 방송 채널(위성, 디지털 등)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가 동일한 의무, 특히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다원주의와 관련된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방송 허가를 거부 또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제재의 처벌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촉구했다.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면 위성 및 디지털 통신사가 책임을 지고 그들이 배포하는 채널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RSF는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인 상호주의 시스템의 확립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 미디어 공간의 개방은 디지털 공간의 상호 개방, 진입 장벽과 검열의 부재 그리고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의 존중을 전제로 하게 될 것이다.

주안점



© Safeguard Defenders

CGTN, 윤리 위반으로 영국 면허 상실

2021년 영국 통신 규제 당국 (Ofcom)은 중국 관영 오디오비주얼 단체인 CGTN의 윤리 위반 사례 4건을 적발해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여전히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선전을 내보내고 있다.

2021년 2월, 영국의 통신 규제 기관인 통신청(Ofcom)은 영국의 중국 관영 오디오비주얼 단체 CGTN(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방송 면허를 취소했으며 이 단체와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말, Ofcom은 또한 Ofcom 방송 규정의 "심각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해당 그룹에 네 차례 제재를 가하여 총 57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Ofcom은 CGTN이 과거 여러 차례 윤리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9년 홍콩 시위 보도에서 "공정성" 규정 위반, Ofcom이 "불공정"한 처사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설명한 2013년과 2019년 사이에 방송된 스웨덴 출판인 Gui Minhai, 전 언론인 Peter Humphrey 그리고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 Simon Cheng의 **강요된 진술**에 대한 방송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방송을 금지**하고 BBC의 프로그램이 "중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중국에서 국제 채널은 이미 국제적인 호텔과 국외 거주자를 위한 주거용 건물에만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TN은 프랑스 고등 방송 협의회(CSA)가 유럽 협의회 of 트랜스프린티어 텔레비전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에 따라 해당 채널은 "사전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럽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 발표에 따라 영국의 결정에 따라 애초에 CGTN을 금지했던 독일 규제 당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CGTN은 프랑스의 결정을 이용해 영국에서도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선전을 막기 위한 법적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CSA의 발표 며칠 후, 강요된 진술의 피해자들은 위성 방송사 유틸셋에 CGTN 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위구르 아동의 강요된 진술을 방송한 2021년 3월 CGTN 방송과 관련하여 CSA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해당 채널에 대한 새로운 진정이 2021년 4월 5일에 제기되었다. 호주에서는 TV 그룹 SBS도 지난 2021년 5월 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로부터 강요된 진술을 방송한 과거 방송에 대한 항의를 접수하여 CGTN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4

국경없는기자회의 호소 및 권고 사항



- RSF는 중국 당국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억류된 언론인과 언론 자유 옹호자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RSF는 자국 영토에서 방송하는 중국 매체가 자국 영토에 기반을 둔 매체와 동일할 규칙을 적용받도록 하고 장벽과 검열 없이 중국 디지털 공간과 미디어 시장의 상호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 매체가 공공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RSF는 언론인들이 중국 당국이 언론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보도에 의도치 않게 중국의 선전 요소 또는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 RSF는 언론 매체, 출판사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 정권의 편집 간섭과 압력을 비난하고 감시, 검열 및 선전 방송을 거부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격을 계속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중국 당국에 대한 호소

- "불법 구금"을 중단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민간인의 집은 "불가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37, 38, 39 조), 보도와 관련하여 억류된 모든 전문 및 아마추어 기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자유롭게 보도된 뉴스 및 정보의 기자 및 옹호자에 대한 납치, 체포, 구금, 고문, 학대, 수색 및 괴롭힘을 중단하라.
- 국내외 언론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라.
- 규약의 19 조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비준하라.
-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5 조에 따라 관영 및 민간 언론의 독립을 보장하라.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40 조에 의해 보장된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국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중단하라.
- 중국에서 외국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을 차단하고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외신 기자의 중국 내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각국 정부 및 기관에 대한 호소

- 앞서 언급한 권고 사항을 중국 당국에 전달하십시오.
- 중국 당국이 해외에 있는 언론인, 언론 매체, 출판인 및 학자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 제삼국의 중국 미디어 방송은 광고를 포함하여 주주와 자금 출처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 방송 채널 및 본국과 관계없이 모든 시청각 매체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송하는 시청각 매체 (특히 위성 텔레비전)는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 매체와 동일한 규칙, 특히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다원주의에 있어 해당 의무와 관련된 규칙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관련된 규칙을 적용받게 하십시오.
- 특히 중국계 이주자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독립적인 중문 매체의 입지를 원조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 국민들에게 미디어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허위 정보 캠페인을 감지하고 다원적이고 독립적인 언론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언론인을 위한 제안

- 가능한 한 중국 당국의 검열이나 감시의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 자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기술 자원은 중국의 규제 대상 기업 (예: 위챗, 바이두, 틱톡)이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서버 (예: iCloud China)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업무 환경과 분리된 전용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연결하십시오. 암호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정보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를 일시적으로라도 저장하지 마십시오. 중국에 있는 서버를 거쳐 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되거나 즉시 삭제된다는 운영 회사의 주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중국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번호 저장이 필요 없는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 (예: Threema)를 통한 통신을 권장합니다.
- 중국 플랫폼을 통해 통신 및 게시하는 경우, 기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제적인 플랫폼에 대등한 콘텐츠를 게시하십시오.
- 중국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는 적절한 VPN(예: 회사 소유의 VPN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유료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VPN 터널은 온라인 조사 중에 차단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PN은 중국 플랫폼/서비스에서 교환되는 통신 내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보안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론인이나特派원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중국계 미디어의 입지와 발전, 특히 출판 및 투자 활동에 주목하십시오. 중국과 연계된 현지 매체의 편집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경우 RSF에 알려 주십시오.
- 보도 과정 및 해당 국가의 매체에서 폐해 (압력, 위협, 괴롭힘, 자체 검열 의혹 또는 부패 의혹)를 발견하면 RSF에 알려 필요한 경우 RSF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중국을 언급할 때, 특정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 대신 신장 탄압, 천안문 "사건" 대신 천안문 학살이라고 언급하십시오.
- 중국 공산당 선전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와 협력하지 말고 중국에 기자로 초청되는 경우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생각해보십시오.
- 중국이 주관하는 미디어 콘퍼런스와 같은 행사에 참여할 때, 언론인이나 언론 매체는 중국 대표와 당국자들이 이러한 행사를 선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인들은 중국의 네러티브와 배경 정보를 미리 조사함으로써 선전 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판적 토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출판사,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제안

-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외부 압력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편집 간섭을 경험하게 되면 고발하십시오.
- 모든 검열 및 감시 요청을 거부하십시오.
- 선전 콘텐츠의 배포를 거부하십시오.
- 중국 정부의 검열, 선전, 매체 인수,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폭로하십시오.
- 정보 및 통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온라인 플랫폼은 책임과 의무, 독립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홍보, 다원주의 및 우연한 발견, 조사의 투명성과 경계의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선언 \(International Declaration for Information and Democracy\)](#) 의 원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주안점

"부수적 자유" 검열을 우회하는 미러 사이트

국경없는기자회의 [#부수적자유 \(CollateralFreedom\)](#) 운영은 세계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속한 국제 서버에서 만들어진 검열된 웹사이트를 "미러링" 하거나 복제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열을 피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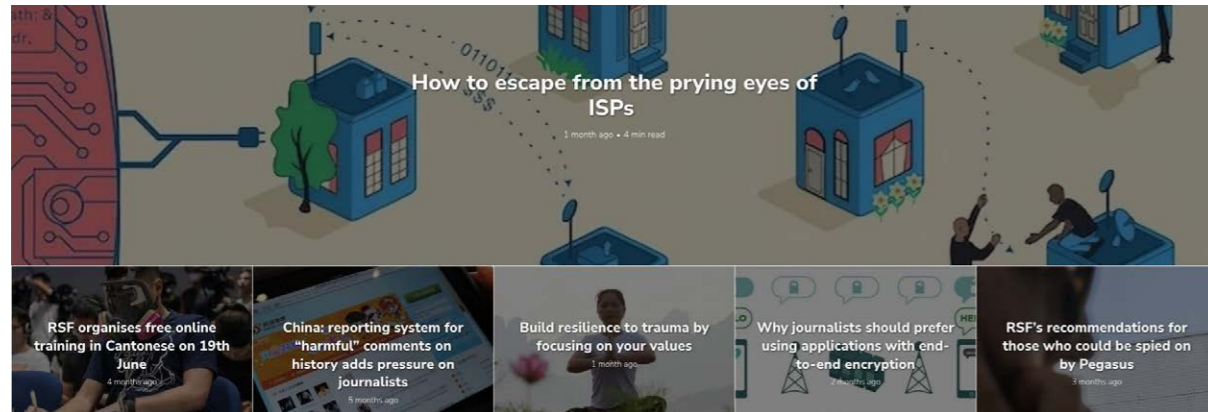
국가가 미러링 액세스를 차단하려면, 이러한 서버가 호스팅하는 모든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국 경제에 상당한 "부수적 피해" 를 입히게 된다.

중국의 경우 이 프로젝트는 다음 웹사이트 미러링을 허용한다. *티베트 포스트, 망징 뉴스,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 민성관자, 웨이취안왕*



© 국경없는기자회 (RSF)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인 안전에 대한 리소스 플랫폼 출시



©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국경없는기자회 (RSF) 는 언론인의 신체적 안전, 사이버 보안 및 실무 수행에 대한 리소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페가수스 폭로 이후 기자가 자기 자신과 정보원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경없는기자회 (RSF) 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인의 신체적 안전, 사이버 보안 및 실무 수행에 대한 리소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코로나 19 보도와 신체적 안전, 사이버 보안, 법률 정보, 정신 건강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인을 위한 정보 및 자가 학습 플랫폼이다. 현재 training.rsf.org 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최소 180 명의 언론인을 포함하여 50,000 대의 휴대전화를 염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도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Pegasus) 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RSF 가 진행한 교육 세션 시리즈의 녹화 동영상과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발간한 *RSF 저널리스트 안전 가이드* 의 전자 버전도 제공한다.

RSF 는 10 여 년 동안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전 세계 1,800 명 이상의 언론인에게 제공했다. 교육 외에도 RSF 는 위협받는 매체 및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류된 언론인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속 대응 지원도 제공한다.

RSF 저널리스트 안전 가이드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를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인 RSF 의 저널리스트 안전 가이드 (*Safety Guide for Journalists*) 는 (training.rsf.org 에서 이용 가능) 는 보도의 모든 단계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는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임무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 평가
- 약물 및 예방 접종
- 여행 키트 꾸리기
- 전투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 내 여행
- 공격, 매복 및 기타 위협에 대한 대비
- 디지털 안전 모범 사례
- 정신 및 신체의 셀프 케어



국경없는기자회 보고서

새로운 세계미디어 질서를 추구하는 중국

2019 년에 발행된 " 중국의 신세계 미디어 질서의 추구 (China's Pursuit of a New World Media Order)" 라는 제목의 과거 보고서에서 RSF 는 정보에 대한 억압적인 비전을 전파하려는 베이징 정권에 의해 자행된 공작을 비판했다.

저널리즘이 국가 선전과 동의어인 " 신세계 미디어 질서 " 를 도입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방송 기구의 현대화, 해외 언론 매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발도상국 언론인을 초청하여 중국에서 " 교육 " 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정권은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elt and Road Initiative)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독재 정부가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기술 및 규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러한 확장은 전 세계 언론과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이 보고서는 RSF 웹사이트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번체 및 간체로 제공)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bit.ly/3BxFH2N>

용어집

중국의 정보 통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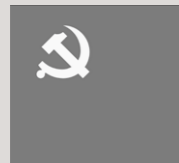
시진핑 (Xi Jinping)

2012년 11월부터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2013년 3월부터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역임.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사상" 요소를 통합하고 임기 제한 없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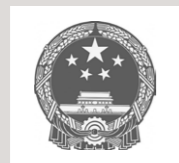
캐리 램 (Carrie Lam)

2017년 7월 홍콩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램은 "애국주의"를 명분으로 중국 정권의 검열 정책을 꾸준히 옹호해 왔다. 2019년 민주화 시위 당시 램은 취재진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임기 동안 최소 12명의 언론인과 언론 자유 옹호자들이 국가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그중 10명은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다.



선전부

"홍보부"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중국 공산당 기관은 중앙 위원회의 선전 및 사상 과업 지도국에서 채택한 선전 지침을 시행한다. 2018년부터 언론 및 출판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원 정보실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중앙 선전부 산하의 이 행정실은 언론이 따라야 하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전향적 버전"의 원고를 작성하고 공식 선전 노선과 모순되는 국제 언론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데 어떤 논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통일전선공작부 (United Front Work Department)

이 투명하지 않은 중국 공산당 지부는 광고를 구매하거나 외국 매체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 매체 (중문 매체 포함) 로의 자금 이체를 감독한다.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2014년에 만들어진 이 기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 사이버공간 위원회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에서 공식화한 인터넷 이슈에 관한 정책을 시행한다. CAC는 인터넷에서 검열, 감시 및 선전 수단을 감독한다.



신화통신사

당의 엄밀한 관리를 받는 관영 통신사로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0개 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로 발행되며 홍콩, 카이로, 나이로비, 뉴욕, 멕시코 시티, 브뤼셀의 지역 센터를 포함하여 162개 해외 지국이 있다.



차이나 미디어 그룹 (CMG)

2018년 3월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으며 비공식적으로 "보이스 오브 차이나"(Voice of China)로 알려진 이 국제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선전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관영 라디오 및 TV 방송 기관 전체의 제작 및 홍보 역량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CGTN)

과거 CCTV-9 및 CCTV 뉴스로 알려졌던 이 관영 케이블 TV 통신사는 160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이 프로그램들은 5개 언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로 방송된다. CGTN은 70개 지국 및 3개 제작 센터 (런던, 워싱턴 D.C., 나이로비) 에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CRI)

1941년 설립된 이 관영 국제 라디오 방송국은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이나 내셔널 라디오 (China National Radio) 와의 협력에서 힘을 얻고 있다. CRI은 중국 국제 방송 네트워크 (China International Broadcasting Network, CIBN) 의 70개가 넘는 해외 라디오 방송국에서 44개 언어로 방송한다.



차이나 데일리 (China Daily)

1981년 설립되어 영문으로만 발행되는 이 관영 일간지는 인쇄 부수 90만 부, 1억 5천만 명의 독자 (인쇄 및 온라인 버전 합산) 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나 데일리의 광고 증보판은 전 세계 유명 신문에 실리고 있으며 발행 부수는 400만 부로 추산된다.



인민일보

1948년 창간된 이 일간지는 당의 공식 선전 기관지로 사설은 종종 중앙 선전부에서 원고를 작성한다. 이 신문은 일일 판매 부수가 300만 부라고 주장한다. 웹사이트는 표준 중국어 이외에도 16개 외국어 및 소수 민족 언어로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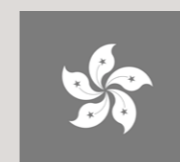
환구시보 (Global Times)

극우 국가주의 타블로이드로 1993년 인민일보가 국제 뉴스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창간했다. 중문판 인쇄 부수는 100만 부, 2009년 창간한 영문판 인쇄 부수는 10만 부이다. 10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는 일일 1,500만 명이 방문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국제 출판 그룹 (China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1949년 설립된 CIPG는 중국에서 가장 큰 외국어 출판사이다. 1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하며 20개 해외 사무소가 있다. 출판물에는 1958년 창간된 중국 유일의 국내 영어 뉴스 잡지인 베이징 리뷰 (Beijing Review) 가 있다.



주요 홍콩 언론

Ta Kung Pao, Wen Wei Po, Phoenix TV와 같이 중국 정부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통제 하에 있는 홍콩의 특정 중문 언론 매체는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 중국의 선전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2016년 영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을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 인수의 배후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화교 언론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주요 화교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권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이었던 뉴질랜드의 차이니즈 헤럴드 (Chinese Herald) 나 호주의 퍼시픽 타임스 (Pacific Times) 같은 신문들이 현재는 선전의 대변자가 되었다. 중국은 또한 화교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전파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Qiaobao(China Press) 같은 독자적인 언론 매체를 만들었다.



중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은 언론인들과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대사들 스스로 중국의 행동에 대한 모든 "오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외국 SNS를 포함하여 작성자를 괴롭히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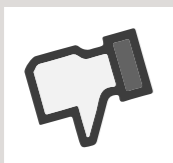
공자 학원

문화 교육부와 당의 중앙 선전부의 출자로 2004년 설립된 공자 학원의 네트워크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하는 과업을 맡고 있으며 154개국에 500개 이상의 학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의 공식적인 역사 및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려 한 탓에 공자 학원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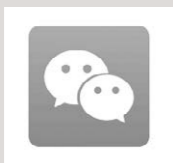
50 센트군 (50-Cent Army)

이 온라인 댓글 부대는 초기에는 그들이 작성하는 게시물 수에 따라 돈을 받았으며 일반 중국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착각 속에 정권의 선전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분홍 (Little Pinks)

"50 센트군"라는 트롤이 친정부 성향의 온라인 댓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고용된 것과 달리, 이 국수주의 트롤은 자발적으로 중국과 외국 플랫폼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회원 대부분이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 포럼 출신의 젊은 여성이라는 틀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위챗 (메시지 앱)

2011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텐센트가 만든 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고정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암호화되지 않으며 중국 서버에서 관리되는 위챗이 수집한 데이터는 중국 정권에 중요한 검열, 영향력 및 감시 지원이 된다.



시나 웨이보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

2009년 출시한 이 "중국판 트위터"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소셜 네트워크로 5억 5000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검열관을 고용하여 당에서 "유해"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와 키워드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차단한다.



바이두 (검색 엔진)

1999년에 만들어진 이 검색 엔진은 중국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구글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똑같이 만든 서비스를 포함하여 여러 비슷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검열과 선전에 협력하기로 악명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지금까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화웨이 (통신 그룹)

1987년 전 중국군 장교가 설립한 세계 주요 통신사인 화웨이는 다른 중국 기술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검열과 감시 기능을 개선하는 데 관여하고 독재 정권이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인터넷 콘퍼런스 (WIC)

2014년에 시작하여 매년 저장성 우전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사이버 공간의 공유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사이버 주권" 개념을 홍보하여 검열 및 감시 관행을 전파하기 위해 이러한 콘퍼런스를 이용한다.



세계 미디어 서밋 (WMS)

2009년 중국에 의해 시작된 이 서밋은 전 세계 언론이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단결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이 서밋을 이용하여 서구의 언론 패권을 비난하고 불균형 해소를 촉구한다.



BRICS 미디어 포럼 (BMF)

2016년 시작된 이 포럼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로 알려진 5개 신흥 경제국의 미디어 대표들이 매년 모이는 포럼이다. 이러한 서밋은 중국이 다른 4개국의 미디어 규정 및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표지 일러스트 : 바두차오

이 보고서의 표지 삽화는 작품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정권의 검열에 도전하는 중국 작가 [Badiucao](#) 가 디자인했습니다. Badiucao 는 BBC, CNN,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 (China Digital Times),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 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의 작품은 호주, 이탈리아, 미국에서 전시되었습니다. 2018 년 홍콩 전시는 중국 정부의 위협으로 개최 직전에 취소되었습니다. 2021 년 Badiucao 는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 중국 대사관의 시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RSF 국경없는기자회

국경없는기자회 (RSF) 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 다원주의 및 독립성을 증진하고 옹호합니다.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유엔과 유네스코에 자문 자격을 갖고 있으며 130 개국에 14 개의 국제 지국과 특파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 **Christophe Deloire**

편집 책임 :: **Catherine Monnet**

저자 : **Cédric Alviani/RSF 동아시아 지국**

편성 : **Aleksandra Bielakowska**

교열 담당자 : **Carole Coen**

표지 삽화 : **Badiuca**

그래픽 디자인 : **Modular Agency**

국제 사무국 - CS 90247 - 75083 PARIS CEDEX 02

전화 +33 1 44 83 84 84

WWW.RSF.ORG